

## 아르메니아 문제와 유럽 강대국 외교: 1877-78 러시아-투르크 전쟁과 베를린 회의를 중심으로\*

강 윤 희\*\*

---

### - 개요 -

아르메니아 문제는 19세기 오스만 제국의 소아시아 영토에 살고 있던 아르메니아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아르메니아 문제는 러시아-투르크 전쟁(1877-78) 이후 체결된 산스테파노 조약과 이를 수정한 베를린 조약을 통해 유럽 열강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유럽 열강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제국의 압둘하미드 2세 정부는 약속한 개혁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이 논문은 1870년대에 아르메니아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과 아르메니아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변모하는 과정을 다룬다. 이 연구는 아르메니아 문제에 대한 유럽 열강 간의 외교뿐 아니라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의 노력, 그리고 유럽 열강의 외교 정책이 아르메니아인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주 제 어: 아르메니아 문제, 1877-78 러시아-투르크 전쟁, 산스테파노 조약, 1878년 베를린 회의, 베를린 조약, 유럽협조체제, 러시아 제국, 대영 제국, 오스만 제국

---

\* 유익한 논평으로 본 논문의 수정 및 보완에 큰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

## 1. 서론

아르메니아 문제는 19세기 오스만 제국의 신민이었던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오스만 제국의 억압적 지배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여타의 기독교인 제 민족과 마찬가지로, 아르메니아인들은 정당한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투르크계 무슬림의 지배 하에서 차별받고 있었다. 이에 오스만 제국이 아르메니아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시민권을 보장하고 관련 행정개혁을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아르메니아 문제는 출발하였다.<sup>1)</sup>

보다 좁은 의미에서 아르메니아 문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오스만 제국에게 아르메니아인 관련 개혁을 요구하는 유럽 열강의 외교를 의미한다. 19세기 들어 오스만 제국의 급격한 쇠락과 더불어 오스만 제국 내에서 빈번히 위기가 발생하자, 유럽 열강들은 오스만 제국의 문제를 “동방 문제”라 칭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해 왔다. 특히 오스만령 발칸 반도에서 그리스인, 불가리아인, 세르비아인을 위시한 비터키계 민족들이 자치 및 독립을 요구하자 유럽 열강들은 각기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오스만 제국의 문제에 깊이 관여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아르메니아 문제는 동방 문제의 일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르메니아 문제가 유럽 열강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1877-78년 러시아-투르크 전쟁 후 산스테파노 조약이 체결된 이후였다. 산스테파노 조약은 오스만 제국에게 아르메니아인 관련 개혁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최초의 조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칸 및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약진에 놀란 유럽 열강들은 베를린 회의를 소집하여 산스테파노 조약을 수정 변경하여 베를린 조약으로 대체하였다. 이에 아르메니아인 관련 오스만 제국의 개혁 문제는 유럽 열강의 공동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유럽 열강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압둘 하미드 2세(Abdül Hamid II)의 술탄 정부는 약속한 개혁을 실행

1) 아르메니아 문제는 1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의 분할과 함께 아르메니아 독립 논의로 변모하였다. 이에 독립 아르메니아의 영토 문제, 즉 오스만 제국과 아르메니아 간의 국경선 설정 문제가 아르메니아 관련 국제적 논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1차 세계 대전 발발 전까지만 해도, 아르메니아 문제는 오스만 제국의 틀 안에서 아르메니아인 처우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 문제를 아르메니아인들의 과도한 영토 요구로 정의하는 것은 아르메니아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에 옮기지 않았다. 결국 아르메니아 문제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되었고, 1894-95년의 아르메니아인 학살과 1915-16년의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아르메니아 문제는 단순히 오스만 제국 내부의 국내정치적 문제가 아니었다. 아르메니아 문제를 “문제”라고 칭한 것 자체가 유럽 열강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유럽 열강의 아르메니아 문제에 대한 입장과 외교정책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서는 아르메니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예컨대 19세기에 발칸의 여러 민족이 오스만 제국의 억압에서 벗어나 독립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왜 아르메니아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지, 또한 유럽 열강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제국이 개혁을 도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르메니아인 학살과 같은 잔혹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르메니아 문제를 유럽외교의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럽 열강은 1878년 산스테파노 조약 체결부터 1923년 로잔 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근 45년에 걸쳐 아르메니아 문제에 관여하여 왔다. 그러나 이것은 유럽 열강이 아르메니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많은 기간 동안 아르메니아 문제는 잊힌 채 방치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유럽 열강의 아르메니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왜 특정 시기에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아르메니아 문제가 유럽 열강의 관심사로 떠오른 1878년 전후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유럽 열강이 처음으로 아르메니아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유럽협조체제의 틀 안에서 아르메니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던 시기이다. 그러나 유럽 열강이 아르메니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동방 정책에서 아르메니아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또한 아르메니아 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 열강의 공조 외교도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877-78 러시아-투르크 전쟁, 산스테파노 조약 체결, 베를린 회의 및 베를린 조약 체결, 그리고 베를린 조약 실행 과정을 세밀히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르메니아 문제의 국제화”는 아르메니아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르메니아 역사서들이 이를 언급하고 있다. 비교적 자세하게 이를 다루고 있는 저서로는 워커(C. J. Walker)

와 호바니시안(R. G. Hovannisian)의 연구가 있다.<sup>2)</sup> 이 외의 아르메니아 역사서 대부분은 아르메니아인의 관점에서 베를린 회의나 각 조약의 아르메니아 관련 부분만을 개략적으로 다루고 있다.<sup>3)</sup> 이들 아르메니아사 저서들은 아르메니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유럽 열강 외교에서 아르메니아 문제가 논의되었던 맥락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9세기 당시 유럽 외교에서의 아르메니아 문제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아르메니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후일 아르메니아인 학살이 일어났다고 서술함으로써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발발의 책임을 부분적으로 유럽 열강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19세기 유럽외교사 일반 연구에서는 아르메니아 문제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럽 열강의 대오스만투르크 외교, 즉 동방 정책은 19세기 유럽 외교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교사 연구서들은 대부분 유럽 열강의 동방 정책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발칸 문제, 흑해 및 보스포루스 해협 문제, 혹은 유럽 열강이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토 점령하였던 지역(이집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4)</sup> 동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조차도 아르메니아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예외적으로 매리어트(J. A. R. Marriott)의 저서는 아르메니아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주로 아르메니아인 학살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다루고 있을 뿐이다.<sup>5)</sup> 1877-78년 러시아-투르크 전쟁 및 1878

2) Christopher J. Walker(1980) *Armenia: The Survival of a Nation*, London: Croom Helm, pp. 108-117; Richard G. Hovannisian(1997) "The Armenian Question in the Ottoman Empire, 1876-1914," in Richard G. Hovannisian, ed., *The Armenian People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Vol. II,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206-212.

3) Richard G. Hovannisian(1967) *Armenia on the Road to Independence, 1918*,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6-27; Simon Payaslian(2007) *The History of Armenia: From the Origins to the Presen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p. 116-117; George A. Bournoutian(2012) *A Concise History of the Armenian People*, Costa Mesa: Mazda, pp. 260-263.

4) 예컨대 René Albrecht-Carrié(1958) *A Diplomatic History of Europe Since the Congress of Vienna*, New York: Harper & Brothers; 김용구(2012)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장을 보라.

5) J. A. R. Marriott(1940) *The Eastern Question: An Historical Study in European Diplomacy*, Oxford: Clarendon Press, pp. 362, 395-401, 472-473, 511 참조.

년 베를린 회의를 다루는 저서조차도 아르메니아 문제를 다루는 경우는 드물었다.<sup>6)</sup> 메들리코트(W. N. Medlicott)의 저서만이 소아시아 지역 및 아르메니아인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7)</sup>

이러한 경향은 러시아에서 출판된 저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러시아사 일반 저서뿐 아니라 러시아 외교사를 다루는 연구에서도 아르메니아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러시아의 동방 정책을 다루고 있는 지가레프(С. Жигарев)의 상세한 연구에서도 아르메니아 문제는 산스테파노 조약과 베를린 조약의 관련 조항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sup>8)</sup> 한편 러시아-투르크 전쟁을 다루는 러시아 저서들도 주요 초점은 발칸 문제, 특히 불가리아에 맞추어져 있을 뿐 아르메니아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sup>9)</sup>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문제의 국제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아르메니아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러시아 내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1991년 이후 아르메니아 문제를 외교사 관점에서 다루는 연구가 등장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연구는 소련 붕괴 이후 독립국가 가 된 아르메니아의 학자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 디아스포라 출신 학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아르메니아인 학살이 발생한 1890년대와 1910년대,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처리 과정을 다루고 있다.<sup>10)</sup> 따라서 1870년대의 아르메니아 문제의

6) 예를 들어 Walter G. Wirthwein(1935) *Britain and the Balkan Crisis 1875-1878*,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Richard Millan(1979) *Britain and the Eastern Question 1875-1878*, Oxford: Clarendon Press를 보라.

7) W. N. Medlicott(1938) *The Congress of Berlin and After: A Diplomatic History of the Near Eastern Settlement 1878-1880*, London: Methuen & Co.

8) Сергей Жигарев(1896) *Русская Политика в восточном вопросе*, Т. 2, М.: Университетская типография, С. 178, 207.

9) 예컨대 러시아-투르크 전쟁 100주년, 125주년을 기념한 러시아 학술저서는 각기 발칸과 불가리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Г. Л. Арш(1978) *Русско-турецкая война 1877-1878 гг. и Балканы*, М.: Наука; А. В. Карасев, В. И. Косик и И. Ф. Макарова (2006) *Россия и Болгария: к 125-летию русско-турецкая война 1877-1878 гг.*, М.: Контти.

10) А. Дж. Киракосян(1990)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и Армянский вопрос: 90-е годы XIX века*, Ереван: Айастан; Manoug Somakian(1995) *Empires in Conflict: Armenia and*

국제화를 둘러싼 외교사 연구는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sup>11)</sup>

본 연구에서는 1870년대의 아르메니아 문제의 국제화 과정을 유럽외교사의 관점에서 다루되 최근의 아르메니아사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이것은 기존의 유럽외교사 연구가 대부분 유럽 열강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작 그 대상이 되는 민족들 - 아르메니아인을 포함하여 - 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묘사하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아르메니아사 연구에서 흔히 나타나듯이 아르메니아 문제만을 선별적으로 다룸으로써 아르메니아 문제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르메니아 문제에 대한 유럽 열강 간의 외교뿐 아니라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의 노력, 그리고 유럽 열강의 외교 정책이 아르메니아인에게 미친 영향 등을 두루 다룬다.

한편 본 연구는 유럽 열강 중에서도 아르메니아 문제에 이해관계가 컸던 러시아와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러시아 제국은 19세기 초부터 카프카스 및 발칸으로 진출하면서 오스만 제국과 수차례 전쟁을 치렀을 뿐 아니라, 자국의 영토 내에 아르메니아인 거주 지역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르메니아 문제에 직접 연관되는 유일한 유럽 열강이었다. 영국은 오스만 제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러시아 제국의 남하정책을 막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동방 문제에 개입하였고 아르메니아 문제에 관한 유럽협조체제의 외교 공조를 주도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아르메니아 문제에 관심이 적었던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간략히 다룬다.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출처의 아르메니아 문제 관련 외교문서 자료집을 1차 자료로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1982년에 터키 앙카라에서 출판된 영국 외교문서 자료집은 콘스탄티노플의 영국 대사가 자국 외상에게 보낸 서신들을 포함하여 1856년부터 1890년까지의 영국 외교문서를 포괄하고 있

*the Great Powers, 1895-1920*, London: I.B. Tauris; Simon Payaslian(2005) *United States Policy Toward the Armenian Question and the Armenian Genocid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Arman J. Kirakossian(2008) *The Armenian Massacres, 1894-1896: British Media Testimony*, Dearborn, MI: Armenian Research Center.

11) 관련 연구로는 В. Г. Тунян(1997) *Россия и Армения 1878-1897 гг.*, Ереван: Амарас; В. Г. Тунян(1998) *Россия и Армянский вопрос*, Ереван: Амарас; Arman J. Kirakossian(2003) *British Diplomacy and the Armenian Question: From the 1830s to 1914*, Princeton: Gomidas Insitute가 있다.

다.<sup>12)</sup> 이 자료집에 수록된 문서들은 오스만 제국에 주재하던 영국 외교관들의 아르메니아인과 관련된 상세한 보고 내용 및 이들의 아르메니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sup>13)</sup> 한편 부르데트(A. Burdett)의 문서집은 주로 아르메니아의 영토 및 인종 문제에 관련된 영국 외교문서를 수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베를린 조약 체결 직후의 아르메니아인의 상황에 대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sup>14)</sup>

부르누티안(G. A. Bournoutian)의 러시아 문서 자료집은 카프카스 아르메니아인에 관련된 러시아 문서들을 발췌하여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 아르메니아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서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sup>15)</sup> 한편 유럽아제르바이잔 협회가 출판한 러시아 문서 자료집은 1724년부터 1914년까지의 아르메니아 문제에 관련된 러시아 문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하고 있다.<sup>16)</sup> 수록 문서들의 원 출처는 러시아국립역사문서고(РГИА: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와 러시아국립군사사문서고(РГВИА: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이다. 그러나 이 자료집은 아르메니아 문제를 일으킨 주된 책임이 러시아와 아르메니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아제르바이잔의 관점을 대변한다.

이 외에 유럽외교사, 러시아사, 아르메니아사의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 주제가 오스만 제국사와 긴밀히 관련되기 때문에 터키

12) Bilâl N. Şimşir, ed.(1982) *British Documents on Ottoman Armenians: Vol. 1(1856–1880)*, Ankara: Türk Tarih Kurumu Basimevi; Bilâl N. Şimşir, ed.(1983) *British Documents on Ottoman Armenians: Vol. 2(1880–1890)*, Ankara: Türk Tarih Kurumu Basimevi.

13) 이 자료집을 출판한 터키 측의 의도는 영국 외교문서를 근거로 아르메니아 문제를 일으킨 주된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면서 동시에 아르메니아 문제를 빌미로 오스만 제국에 간섭하는 영국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있다. Şimşir, ed.(1982), 서문을 보라.

14) Anita L. P. Burdett, ed.(1998) *Armenia: Political and Ethnic Boundaries 1878–1948*, Chippenham: Antony Rowe Ltd.

15) George A. Bournoutian, ed.(1998) *Russia and the Armenians of Transcaucasia, 1797–1889: A Documentary Record*, Costa Mesa: Mazda.

16) Тале Гейдаров(2011) “Армянский вопрос” на Кавказе: по материалам Российских архивов и изданий, 1724–1914, в 3 томах,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Академия исслед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서문과 해설 부분을 영어로 번역한 같은 내용의 자료집이 영국에서도 출판되었다. Tale Heydarov, Janice Farrell and Ian Peart, eds.(2011) *The Armenian Question in the Caucasus: Russian Archive Documents and Publications*, Vol. 1-3, Reading: Ithaca Press.

문헌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아르메니아 문제가 아르메니아인 대학살과 관련되고 현재도 터키와 아르메니아 간에 아르메니아 대학살 인정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문제를 다루는 터키 학자들의 연구도 적지 않다.<sup>17)</sup> 본 연구에서는 주로 터키 학자들의 영문 저서를 참조하였음을 밝힌다.<sup>18)</sup> 이와 더불어 1877-78년 러시아-투르크 전쟁 및 베를린 회의에 관한 터키 학자들의 최근 연구들도 참조하였다.<sup>19)</sup>

한편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1870년대 당시의 아르메니아 문제는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제국, 양 제국 안에 살고 있던 아르메니아인, 그리고 아르메니아 문제에 관여했던 유럽 열강, 특히 영국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명 및 인명 표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다. 특히 지명의 경우 각 언어별로 조금씩 다르게 불리거나 추후 이름이 변경된 곳이 많아서 혼선의 여지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논문의 일관성과 가독성 제고를 위해 러시아 지명과 인명은 러시아어 방식으로 표기하되 그 외의 지명과 인명은 한국어로 정착된 방식을 따르거나 영어식 표기를 따르고자 한다. 한편 지명은 가급적 1870년대 당시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예컨대 오스만 제국의 수도는 이스탄불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로 표기된다.<sup>20)</sup>

17) 예컨대 Esat Uras(1976) *Tarihte Ermeniler ve Ermeni Meselesi*, Istanbul: Belge Yayinlari; Seyit Sertçelik(2015) *Rus ve Ermeni Kaynaklari Işığında Ermeni Sorunu: Ortaya Çikiş Süreci 1678-1914*, Ankara: SRT 등의 터키어 저서가 있다.

18) 터키와 아르메니아 간에 아르메니아 문제에 대한 역사 논쟁이 계속 되고 있어서 터키 학자들이 관련 저서를 영문으로도 출판하고 있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영국문서자료집 외에 다음의 저서들을 참조하였다. Kamuran Gürün (1985) *The Armenian File: The Myth of Innocence Exposed*, London, Nicosia and Istanbul: K. Rustem & Bro. and Weidenfeld & Nicolson Ltd; Salahi Sonyel(2000) *The Great War and the Tragedy of Anatolia: Turks and Armenians in the Maelstrom of Major Powers*, Ankara: Turkish Historical Society Printing House.

19) Ömer Turan, ed.(2007) *The Ottoman-Russian War of 1877-78*, Ankara: Middle East University. 한편 야부즈(M. Hakan Yavuz)가 편집한 저서에는 러시아-투르크 전쟁 및 베를린 조약과 관련된 터키 학자들의 논문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 저서에는 베를린 조약이 오스만 제국 내 다양한 민족 집단에게 미친 영향 등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주제들을 다룬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M. Hakan Yavuz, ed.(2011) *War and Diplomacy: The Russo-Turkish War of 1877-1878 and the Treaty of Berlin*, Salt Lake City: The University of Utah Press.

20) 오스만 제국 시절 현재의 이스탄불은 터키어로 Kostantiniyye 혹은 İstanbul이라 불



## 2. 아르메니아 문제 등장 배경

아르메니아인들이 아나톨리아 반도의 아르메니아 고원에 정착한 것은 기원전 천 년 이전인 것으로 추정된다.<sup>21)</sup> 아르메니아 역사에서 최초의 국가로 간주되는 고대국가 반 왕국 이후, 아르메니아인들은 아르메니아 왕국, 실리시아 왕국 등을 건설한 바 있다. 그러나 동과 서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는 아르메니아 고원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아르메니아인들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았다. 동쪽의 페르시아 제국, 서쪽의 로마 제국(추후 비잔티움 제국)이 아르메니아 고원 방향으로 팽창할 때마다 아르메니아는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이들의 속국이나 동맹국의 지위로 전락했다. 여기에 더하여 아랍, 셀주크 투르크, 몽골 세력이 아르메니아 고원 지역으로 확대될 때마다 이들의 침입과 지배를 받았다.

아르메니아인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중반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아르메니아 전체 지역이 페르시아 제국에 병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자 아르메니아는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 사파비 제국 간의 각축장이 되었다. 결국 양 제국 간의 20여 년에 걸친 긴 전쟁 끝에 1555년 아르메니아의 서쪽 지역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 이후 19세기 초반 러시아 제국이 카프카스로 남하하기 전까지 아르메니아는 페르시아 지배 하에 있는 동 아르메니아, 오스만 지배 하의 서 아르메니아로 나뉘어져 있었다.

19세기 오스만 제국 내에 거주하던 아르메니아인은 약 240-260만 명 정도에 달하였다. 1844년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공식 인구조사에서 아르메니아인

---

렸고, 공식문서에서도 이 두 명칭이 혼용되었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였다. 영국 및 프랑스(Constantinople), 독일(Konstantinopel)에서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콘스탄티노폴(Константинополь)이라 불렀다.

- 21) 아르메니아 고원은 남과 북으로는 타우루스 산맥과 폰투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으로는 우르미아 호수, 아라스 강, 쿠라 강이 경계를 이룬다. 서쪽 경계는 다소 불명확한데, 타우루스 산맥에서 발원한 서 유프라테스 강이 동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지점에서 폰투스 산맥까지를 대체적으로 아르메니아 고원의 서쪽 경계로 간주한다. 아르메니아 고원 전체가 대아르메니아 지역에 포함되며,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시바스(Sivas) 주변 지역은 소아르메니아라 불렀다. Hovannisian(1967) 1-2. 아르메니아 고원은 현재 터키의 영토이며, 터키에서는 이 지역을 아르메니아 고원이라 칭하지 않고 동 아나톨리아 지역이라 부른다.

은 240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30만 명은 콘스탄티노플, 스미르나(지금의 이즈미르), 발칸 지역에 거주하고 35만 명은 동 아나톨리아의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한편 콘스탄티노플의 아르메니아 총대주교청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1882년 당시 266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오스만 제국에 거주하며 이 중 163만 명이 동 아나톨리아의 6개 주(vilayet)에 살고 있었다.<sup>23)</sup> 이들 6개 주는 에르주룸, 비틀리스, 반, 디아르베키르, 하르푸트, 시바스 주이며, 이곳이 바로 아르메니아 문제에서 아르메니아 주, 혹은 아르메니아인들의 거주 지역이라 칭해지는 곳이다.<sup>24)</sup>

19세기 당시 콘스탄티노플이나 기타 도시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 그리고 동 아나톨리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의 삶은 매우 달랐다. 전자가 주로 상업, 무역, 통역, 공예 등에 종사하였던 반면, 후자는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다. 도시 거주민이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교육을 잘 받았던 반면, 농촌 거주 아르메니아인들은 대체로 가난하고 문맹이었다. 오스만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거주민 가운데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쥔 소수의 최상층 아미라 계급이 있었고 오스만 제국 내 상권을 장악한 거상들이 있었다. 그런가하면 길드에 소속된 장인들이 금속 세공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들의 수가 약 4만 명에 달하였다. 한편 동 아나톨리아 지역 중에서도 반, 에르주룸, 시바스, 에르진잔, 디아르베키르, 아다나 등의 도시에 거주하던 아르메니아인들은 주로 상업이나 공예에 종사하였다.<sup>25)</sup> 반면에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 농민들은 농노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 이들은 오스만 제국의 최하층민 중의 하나였다.

이처럼 아르메니아인 중에서도 거주 지역과 계층에 따라 경제적 격차가 매우 컸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인이 모두 비참한 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sup>26)</sup> 그러나 아르메니아인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아르메니

22) Hagop Barsoumian(1997) "The Eastern Question and the Tanzimat Era," in Richard G. Hovannisian, ed., *The Armenian People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Vol. II,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191-192.

23) Hovannisian(1967), 36.

24) 이 6개 주가 아르메니아인들의 주요 거주 지역이던 아르메니아 고원과 소아르메니아를 포괄한다. 이 6개 주 외에 실리시아에도 아르메니아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25) Hovannisian(1967), 24; Barsoumian(1997), 188-192 참조.

26) 터키 측 학자들은 아르메니아인 중 부유한 상인계층이 많았던 것을 근거로 아르메

아 농민들이 군사-봉건제 국가인 오스만 제국을 지탱하기 위한 모든 부담을 다 짊어진 채 처참한 생활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다. 아르메니아 문제는 바로 이 동 아나톨리아의 아르메니아 농민들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아르메니아 농민들은 과도한 세금, 강제노역, 토지몰수, 농작물의 불법적 도용, 강제 대출, 저임금 노동 등으로 인해 크게 고통 받고 있었다.<sup>27)</sup>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민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이었다.<sup>28)</sup> 농민들은 산출 농작물의 십분의 일세, 가옥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가축에 부과하는 세금, 결과수(結果樹)에 부과하는 세금, 도로사용세, 전쟁세, 인두세, 그리고 출생·결혼·사망 시 부과되는 세금을 국가에 내야했다. 문제는 오스만 제국의 부패와 비효율적 행정 시스템 때문에 세금 징수의 전횡이 심했다는 점이다. 세율은 지역과 연도에 따라, 세금 징수자에 따라 달라지기 일쑤였다.<sup>29)</sup> 예컨대 아르메니아 농민들은 대개 생산물의 십분의 일보다 많은 세금을 십분의 일세로 냈다. 이 외에도 아르메니아인은 비무슬림으로서 군 복무를 면제받는 대신 특별 세금을 내야했다.

아르메니아 농민들을 가난으로 내몬 또 다른 요인은 이들의 토지 상실이다. 오스만 제국은 지속적으로 무슬림인 투르크인과 쿠르드인을 동 아나톨리아에 정착시키고 이들에게 토지 소유권 및 각종 경제적 혜택을 주었다.<sup>30)</sup> 이에 19세기 당시 이 지역의 봉건영주(gha)들은 대부분 투르크인이거나 쿠르드인이었다. 아르메니아 농민들은 “보호받는” 대가로 이들 영주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영주의 경작지에서 부역해야 했다. 그런데 봉건영주들이 아르메니아 마을 주민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세금을 부과한 다음 강제 대출 방식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의 토지를 빼앗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sup>31)</sup> 결과

니아인의 형편이 무슬림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Gürün(1985), 73-74를 보라.

27) 이하 아르메니아 농민의 경제적 상황에 관해서는 Barsoumian(1997), 193-194 참조.

28) 세금 문제는 비단 아르메니아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발칸 지역의 기독교인 민족들도 오스만 제국의 과도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다. 따라서 세금 문제는 발칸 지역의 오스만 행정 개혁에서도 계속적으로 거론되었다.

29) 세금징수도급제에 의해 보다 많은 세금을 걷겠다고 한 자가 세금 징수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세금 징수자는 농민들에게 최대한의 세금을 부과했다.

30) 쿠르드족의 동 아나톨리아 정착은 16세기 술탄 셀림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쿠르드족은 페르시아와의 국경 지대를 수비하는 민병대 역할을 하는 대신 세금을 면제받았다. 술탄 무라드 4세 시기에 쿠르드인의 지위는 더욱 강화되었고 더 많은 쿠르드 가구가 아르메니아인 거주 지역에 정착하였다(Somakian 1995: 12).

31) 지역 영주들은 세금을 낼 수 없는 아르메니아인 농민들에게 50%의 이자로 돈을

적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신의 경작지를 빼앗긴 채 소작농의 신세로 전락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동 아나톨리아 지역의 불안정한 치안 문제도 아르메니아 농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19세기 내내 이 지역에서는 오스만 정부의 치안 및 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지역 차원의 불안정이 계속 되었다.<sup>32)</sup> 특히 1850년대에서 1870년대까지 동 아나톨리아 농촌 지역에서는 쿠르드 유목민 무리에 의한 약탈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sup>33)</sup> 또한 1858년 이후 카프카스에서 이주해 온 체르케스인도 이 지역의 불안정에 기여하였다.<sup>34)</sup> 쿠르드인과 체르케스인 무리의 잦은 습격과 약탈이 아르메니아 농민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sup>35)</sup> 아르메니아 농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아르메니아인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었다.

한편 아르메니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스만 제국 치하에서의 아르메니아인들의 정치, 사회적 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형적인 다종교, 다민족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은 밀레트 제도를 통해 무슬림이 아닌 여러 민족

---

빌려주었다. 몇 년이 지나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아르메니아 농민들은 자신의 경작지를 헐값에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32) 자세한 내용은 Brad Dennis(2011) "Patterns of Conflict and Violence in Eastern Anatolia Leading Up to the Russo-Turkish War and the Treaty of Berlin," in Yavuz, ed.(2011), 273-301 참조.

33) Dennis(2011), 280.

34) 체르케스인들은 북카프카스에 살던 무슬림 민족이다. 이들은 러시아의 북카프카스 정복 이후 러시아에서 내몰려서 오스만 제국으로 이주했다. 1858년에서 1864년 사이에 약 60만 명이 오스만 제국으로 들어왔다. 오스만 제국은 의도적으로 이들을 기독교인 거주 지역에 정착시켰는데, 이 중 40만 명은 발칸의 루멜리아 지역에 정착했고, 나머지는 동부 아나톨리아의 트라브존, 예르주룸, 디아르베키르, 비틀리스 등에 정착했다. 오스만 제국은 이들을 군인으로 활용하고자 했지만, 정식 군대에 합류시키지는 않았다. 군인으로서의 적당한 수준의 봉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은 약탈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Dennis 2011: 276). 체르케스인의 카프카스 지역으로 부터의 이주 문제에 대해서는 신동혁(2016) 「19세기 카프카스 전쟁과 체르케스 민족의 이주 문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사업단 엮음, 『카프카스 역사와 지정학: 전쟁, 분쟁, 그리고 이념』, 민속원 참조.

35) 터키 학자 귀린(Gürün)은 아르메니아 농민들뿐 아니라 무슬림 농민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한다. Gürün(1985), 73.

들을 그들의 신앙에 따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통치하고 있었다.<sup>36)</sup> 아르메니아인들은 아르메니아 밀레트에 속해 있었는데, 콘스탄티노플의 아르메니아 총대주교가 아르메니아 밀레트 운영에 책임을 지고 아르메니아인을 대변하였다.<sup>37)</sup> 오스만 제국의 비무슬림들은 밀레트를 통해 일종의 자율을 허용 받았지만, 이들이 무슬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비무슬림들은 밀레트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 비무슬림들은 무슬림에게 존경을 표시해야 했고, 특정 복식을 착용해야 했다. 또한 비무슬림이 무기를 소지하거나 말을 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법정에서 비무슬림의 무슬림에 반하는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다.<sup>38)</sup> 비무슬림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대신 오스만 제국의 보호에 대하여 특별세금을 지불해야 했다.<sup>39)</sup> 발칸의 기독교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아르메니아인도 비무슬림으로서 이러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비무슬림과 무슬림의 동등한 대우는 오스만 개혁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

오스만 제국의 탄지마트 개혁(1839-1878)은 유럽 열강의 압력 하에서 오스만 제국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제국의 쇠퇴를 막고자 도입되었다. 오스만 정부는 1839년, 1856년에 일련의 개혁안을 담은 칙서를 발표했는데, 이러한 개혁안은 모든 신민(무슬림과 비무슬림)의 법 앞의 평등, 재산과 생명의 안전, 전횡적 세금의 금지, 법 행정기관의 근대화를 상정하고 있다. 탄지마트 개혁의 절정은 1876년 오스만 제국 최초의 헌법 채택이었다. 이 헌법은 보다 폭넓은 정치 참여, 다양한 시민권 및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탄지마트 개혁이 제대로 실현되었다면 제국 내 모든 신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이들의 처지가 개선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탄지마트 개혁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채 끝나게 된다.<sup>40)</sup>

36) 밀레트는 비무슬림 공동체에게 일종의 자치를 허용하는 대신, 각 공동체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에 부과된 세금을 걷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Hovannisian 1967: 25).

37) 19세기에 아르메니아 밀레트는 그리스정교도 밀레트, 유대교도 밀레트와 더불어 오스만 제국의 3대 비무슬림 밀레트 중 하나였다. 아르메니아 총대주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는 Barsoumian(1997: 184-185) 참조.

38) Barsoumian(1997), 182-183.

39) Hovannisian(1967), 25.

40) 탄지마트 개혁은 오스만 정부의 구조를 바꾸기는 하였으나, 오스만 제국의 사회

아르메니아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탄지마트 개혁 시기를 거치면서 무슬림과 비무슬림 간의 갈등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무슬림들은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이슬람법과 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편 발칸의 기독교 민족들의 소요와 반란, 그리고 이들의 자치 및 독립 획득 이후,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아르메니아 밀레트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sup>41)</sup> 1862년의 자이툰 봉기와 그 이후의 여러 봉기 사건에서 나타나듯이,<sup>42)</sup> 무슬림과 아르메니아인 간의 갈등은 종종 유혈사태를 동반하였다.

### 3. 아르메니아 문제의 국제화(1): 1877-78 러시아-투르크 전쟁과 산스테파노 조약

본 장에서는 오스만 제국 내부의 문제였던 아르메니아 문제가 1877-78년 러시아-투르크 전쟁 이후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간에 맺어진 산스테파노 조약을 통해 유럽 외교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아르메니아 문제가 최초로 국제적 관심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는 러시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에 본 장에서는 러시아 제국의 카프카스 진출부터 산스테파노 조약 체결까지의 외교사를 다룬다.

를 개혁하고 오스만 제국 신민의 정치적,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는 실패했다. 콘스탄티노플이나 몇몇 대도시에서는 긍정적 발전이 있었지만, 그 외의 농촌 지방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Barsoumian 1997: 199).

41) Payaslian(2007), 114.

42) 아르메니아 고원의 산악 지대에 위치한 자이툰은 아르메니아인 영주 하에 아르메니아인들의 자치가 인정된 예외적인 곳이다. 1862년 자이툰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오스만군이 자이툰을 공격하였다. 자이툰은 오스만군을 상대로 저항하기로 결정하였고 수적으로 우세한 오스만군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오스만군이 자이툰을 봉쇄하자 아사 위기에 놓인 자이툰의 저항세력은 프랑스 나폴레옹 3세의 중재를 요청하였다. 결국 프랑스의 중재에 따라 술탄 압둘 아지즈는 자이툰으로부터 오스만군을 철수시키고 자이툰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일정한 자유를 인정하였다. 1862년 자이툰 봉기는 아르메니아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된다. 이후 아르메니아인들은 반(1862), 예르주름(1863), 무쉬(1864)에서 봉기를 일으켰다(Walker 1980: 100-102; Bournoutian 2012: 259-260).

### 3.1. 19세기 러시아 제국의 카프카스 진출

러시아 제국은 18세기 표트르 대제 시기부터 끊임없이 제국의 남쪽 영토를 확장해 왔는데, 이것은 크림 반도 및 흑해 북쪽 연안, 발칸 지역, 카프카스 남서부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과의 충돌을 의미했다. 18세기 중반 예카테리나 여제 시절 크림 반도 및 흑해 연안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빼앗은 러시아 제국은 19세기 초부터 카프카스 지역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당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 및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러시아 제국은 1801년 동(東)그루지아를 합병한 이후 동그루지아 주변의 페르시아 제국 치하의 칸국들을 무력으로 점령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1805-1813)이 발발하자, 러시아 제국은 1806년까지 다게스탄 지역, 간자 칸국, 세키 칸국, 카라바흐 칸국, 시르반 칸국, 쿠바 칸국, 바쿠 칸국 등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1806년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제국 간 전쟁이 발발하자 이후 몇 년간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선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1812년 러시아의 탈리시 칸국 점령 이후 전세가 크게 기울자, 페르시아 제국은 마침내 1813년 굴리스탄 조약(Treaty of Gulistan)을 맺어 바쿠를 포함한 남카프카스의 칸국들을 러시아에게 공식 양도하였다. 이것은 대략적으로 현재의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806-1812년 사이의 러시아-오스만 제국 간의 전쟁은 영토 변경 없이 끝났다.

1825년 알렉산드르 1세 사망 후 니콜라이 1세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보다 호전적인 파스케비치(И. Паскевич)를 카프카스로 보내어 그 이듬해인 1827년 카프카스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1826년 페르시아 제국의 공격으로 시작된 러시아-페르시아 전쟁에서 파스케비치 휘하의 러시아 카프카스군은 카프카스의 남동쪽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미아진 칸국, 예레반 칸국, 나히체반 칸국을 점령하였다.<sup>43)</sup> 1828년에 맺어진 투르크멘차이 조약(Treaty of Turkmenchay)은 위의 지역들을 러시아령으로 인정하였다. 투르크멘차이 조약은 1813년의 굴리스탄 조약과 더불어 카프카스 지역에서의 페르시아 제국의 완전한 후퇴를 의미하였다.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은 투르크멘차이 조약이 체결된 지 불과 1달여 만에

43) 이것은 대략적으로 현재의 아르메니아 영토에 해당한다. 나히체반 지역은 현재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영토 분쟁지역이다.

발발하였다. 1828-29년의 러시아-투르크 전쟁은 발칸 반도의 그리스 사태로부터 촉발되었다.<sup>44)</sup> 러시아 제국의 그리스 독립 전쟁에의 개입에 불만을 가진 술탄은 러시아를 오스만 제국의 적국으로 선포하였고, 니콜라이 1세는 오스만 제국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답을 하였다.<sup>45)</sup> 러시아-투르크 전쟁은 발칸 반도와 카프카스 지역에서 2개의 전선에서 치러졌다. 니콜라이 2세가 직접 10만 명의 군대를 지휘하였던 발칸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초기에 고전을 하였으나 1829년에 포위 중이었던 십라를 우회하여 아드리아노플(현재의 에디르네)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파스케비치 휘하의 러시아 카프카스군은 카프카스에서 동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진격하여 카르스, 에르주룸, 아할칼락, 아할츠키 등 오스만 제국 동북 지역을 점령하였다.<sup>46)</sup>

그러나 1829년 아드리아노플 조약(Treaty of Adrianople)을 체결하였을 때, 러시아 제국은 흑해 연안과 포티 항, 아할칼락 및 아할츠키 지역만을 병합하고 카르스와 무쉬 지역은 오스만 제국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대신 러시아 제국은 발칸 지역에서 다뉴브강 하구를 얻었고, 오스만 제국이 배상금 지불을 완료할 때까지라는 조건 하에 몰다비아와 왈라키아 공국을 점령할 수 있었다.<sup>47)</sup> 한편 자유로운 주민 교환을 규정하고 있는 아드리아노플 조약 13조에 따라, 1829년 10월부터 7,668 아르메니아인 가구가 러시아령 아르메니아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총 9-1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러시아령 아르메니아로 이주하였다.<sup>48)</sup>

19세기 전반기에 일어난 러시아 제국의 카프카스 진출은 아르메니아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러시아 제국이 카프카스 지역을 통치하

44) 그리스인들은 1821년 오스만 통치에 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1822년 독립을 선포하였으나, 술탄 정부를 돕기 위해 파견된 이집트 함대의 무력 개입에 의해 1826-27년경에는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45)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과 그리스 사이에 중재를 자처하였으나 성과가 없자, 1827년 3국의 연합 함대가 나바리노에서 이집트-투르크 함대를 격파시켰다. 술탄 정부는 나바리노 해전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에게 돌렸다. 영국과 러시아의 외교 공조를 포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Paul Miliukov, Charles Seignobos and L. Eisenmann(1969) *History of Russia*, Vol. 2, New York: Funk & Wagnalls, pp. 280-282 참조.

46) S. F. Platonov(1925) *History of Russia*, New York: Macmillan, p. 352.

47) Albrecht-Carrié(1958), 46-47.

48) Payaslian(2007), 112.



게 됨에 따라 이 지역에 거주하던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 제국 안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 제국은 오스만 제국과 더불어 아르메니아인을 신민으로 가지고 있는 양대 제국이 되었다. 이는 러시아 제국이 아르메니아 문제에 관해 유럽의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특별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편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인들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령 아르메니아는 오스만의 폭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러시아 지배 하의 동 아르메니아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았고 주변 무슬림 민족에 의해 안전을 위협당하지도 않았다. 러시아의 카프카스 점령 이후 니콜라이 1세 시기의 카프카스 정책은 다분히 보수적인 것이었지만,<sup>49)</sup> 아르메니아인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대우를 받았다.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러시아 정교회에 복속된 그루지아 정교회와는 달리 1836년 자율성을 인정받았다. 이와 더불어 성직자의 세금 면제, 교회 재산 유지 등의 혜택을 받았다.<sup>50)</sup> 따라서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인들은 1829년 이후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러시아령 아르메니아로 이주하였다.

또한 1828-29년 러시아-투르크 전쟁 시 러시아군이 오스만 제국 동북부의 아르메니아인 거주 지역을 일시적으로나마 점령하였던 사실은, 아르메니아인이 러시아 제국의 힘을 빌려 오스만 제국의 멍에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이것은 19세기 중후반 러시아와 투르크 간 전쟁이 발생할 때마다 일부 동 아르메니아인들이 자원병으로 전투에 참여한 이유이기도 하다.

1853년 불거진 러시아 제국과 오스만 제국 간의 또 다른 전쟁( 크림 전쟁)은 러시아 제국이 카프카스 너머 오스만 제국 영토로 자국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러시아군은 크림 반도 주변과 흑해 연안, 발칸 반도, 그리고 카프카스 전선에서 오스만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러시아군의 우세가 분명했다. 특히 카프카스 전투에서는 카르스를 위시한 아나톨리아 동북부 지역이 러시아군의 통제 하에 들어왔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등의 개입(1854), 크림 반도에서의 패배(1856) 이후 러시아 제국은 전쟁의 패자로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평화협상에 임할 수밖에

49) 초기의 카프카스 정책은 카프카스 민족들을 러시아화시키고 카프카스를 러시아 제국의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 안에 끌어넣는 것이었다.

50) Bournoutian(2012), 279-280.

에 없었다. 1856년 파리 국제회의 이후 맺어진 파리 조약은 모든 면에서 러시아에게 크게 불리한 것이었다. 특히 흑해 중립 조항은 러시아가 흑해에 해군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러시아에게 치명적이었다. 이 외에도 러시아의 국경은 전쟁 발발 이전으로 돌아갔고 러시아는 발칸과 남카프카스에서 획득한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다시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1828-29년 이후 얻었던 다뉴브강 하구를 반환하고 몰다비아와 왈라키아 공국으로부터 철수해야 했다. 몰다비아와 왈라키아는 세르비아와 함께 오스만 제국에 예속된 자치령이 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 내 기독교인 보호에 대한 배타적 권리 주장도 포기해야 했다.<sup>51)</sup> 크림 전쟁에서의 러시아 제국의 패배는 러시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제국을 도와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고자 하였던 아르메니아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 3.2. 러시아-투르크 전쟁(1877-78)과 산스테파노 조약

크림 전쟁의 패배 이후 러시아 제국은 자국의 후진성을 자각하여 국내 개혁에 착수하는 한편,<sup>52)</sup> 국제무대에서는 1871년 런던조약을 준수하면서 타 유럽 열강과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외교를 펼쳤다.<sup>53)</sup> 그러나 러시아는 크림 전쟁의 굴욕을 영구적으로 감수할 생각이 아니었다. 기회는 1875-76년의 발칸 사태로 왔다. 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 불가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기독교인들의 반란을 오스만 정부가 잔혹하게 진압하자 유럽 내에서는 반(反)오스만투르크 정서가 확산되었다.<sup>54)</sup> 러시아에서도 발칸 슬라브 민

51) Albrecht-Carrié(1958), 92-93.

52) 알렉산드르 2세 치하에서 1861년 농노해방, 1864년 지방행정개혁과 사법개혁, 1874년 군개혁 등이 일어났다. 자세한 내용은 Nicholas V. Riasanovsky(2000) *A History of Russia*, 6<sup>th</sup>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369-378 참조.

53) 이 시기에 러시아 외상이었던 고르차코프(A. M. Горчаков)공은 소위 “묵상(recueillement)” 정책을 취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해외에서의 모험적인 행동을 피한다는 것이었다. Charles and Barbara Jelavich, eds.(1959) *Russia in the East 1876-1880: The Russo-Turkish War and the Kuldja Crisis as Seen through the Letters of A. G. Jomini to N. K. Giers*, Leiden: E. J. Brill, p. 4.

54) 1875년 7월 보스니아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1876년 6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오스만 제국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세르비아는 오스만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으나 러시아의 압력으로 오스만군은 베오그라드를 점령하지 않았다. 반란이 일어났던

족들의 고통에 공감하여 오스만투르크에게 확고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여기에 범슬라주의가 큰 기여를 한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범슬라주의자들은 기독교 민족들, 특히 불가리아인의 해방을 위해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강력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 러시아 외교정책 결정자 모두가 범슬라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sup>55)</sup> 발칸의 위기가 계속되고 발칸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자 러시아는 결국 오스만 제국과 전쟁에 들어갔다.<sup>56)</sup>

1828-29년의 러시아-투르크 전쟁과 마찬가지로, 전선은 발칸 지역과 카프카스 지역에서 열렸다. 발칸 전선에서 최대 격전지는 플레브나였다. 오스만군은 결사 항전하였지만, 결국 12월에 플레브나가 함락되었다. 이후 러시아군은 콘스탄티노플 인근까지 진격하였다.<sup>57)</sup> 카프카스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바야제트, 알라쉬케르트에 이어 카르스, 예르주름, 사리카미쉬, 아르다한을 점령하였다.

1877-78년 러시아-투르크 전쟁은 발칸의 기독교 제 민족뿐 아니라 아르메니아인에게도 중요한 전쟁이었다. 전쟁의 승패에 따라 오스만 제국의 운명과 그 속에 사는 기독교 신민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1877년 전쟁이 발발하자,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친오스만 입장과 친러시아 입장으로 나누어졌다. 보수적인 아르메니아 밀레트 지도층은 오스만 제국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고 러시아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콘스탄티노플의 아르메니아 총대주교는 아르메니아 신민들에게 오스만 제국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촉구하는 교서를 발송하기까지 했다.<sup>58)</sup> 그러나 오스만 제국의 동북부 국경 지대에 살던 아르메니아인들은 러시아를

---

불가리아 지역에서의 오스만군 - 정규군과 비정규군 - 의 잔혹한 진압 내용이 유럽에 알려지자 유럽 내 여론은 오스만 제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된다(Albrecht-Carrié 1958: 169-170).

55) 고르차코프 외상은 러시아가 발칸에서 독자적으로 공세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특히 발칸의 슬라브 민족 해방이라는 이상주의적 목적으로 근동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것은 국내 개혁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낭비할 뿐 아니라, 발칸에서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유럽 열강이 러시아에 대항하여 결속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다(Jelavich, eds. 1959: 4-5).

56) 알렉산드르 2세는 1877년 4월 24일 오스만 제국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57) 러시아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할 시 발생할 국제적 여파를 고려하여, 러시아군은 콘스탄티노플 직전에서 진격을 멈추고 오스만 제국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58) Walker(1980), 109.

오스만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간주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카르스 진격을 앞두고 쿠르드족 비정규군이 카르스, 알라쉬케르트, 바야제트 지역의 아르메니아 마을들을 약탈하고 불태우자 이러한 견해가 더욱 강해졌다. 러시아군이 1877년 11월 카르스를 점령하고 3달 후 에르주룸을 점령하자, 이 지역의 아르메니아 주민들은 러시아군을 해방군으로 환영하였다.<sup>59)</sup> 러시아군 점령지의 일부 아르메니아인들은 러시아군에 의용군으로 합류하기까지 했다.<sup>60)</sup>

한편 러시아 제국의 동 아르메니아인들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서 아르메니아를 해방시키는 데 희망을 걸었다. 전쟁이 시작되자 동 아르메니아인들은 군사복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의용군 부대를 조직하여 러시아군에 합류하였다.<sup>61)</sup> 한편 카프카스 전선에서는 아르메니아인 출신 장군들의 활약이 매우 두드러졌다. 로리스-멜리코프(М. Т. Лорис-Меликов), 구사코프(А. А. Гусаков), 라자레프(И. И. Лазарев)와 같은 아르메니아인 장군들이 러시아 카프카스군을 지휘했다. 로리스-멜리코프 장군과 라자레프 장군이 이끄는 러시아군은 카르스를 점령하였고, 구사코프 장군 휘하의 러시아군은 바야제트, 알라쉬케르트에 이어 에르주룸을 점령했다.<sup>62)</sup>

발칸 및 카프카스 모든 전선에서의 러시아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인해, 러시아는 매우 우월한 입장에서 오스만 제국과의 평화협상에 임할 수 있었다. 1878년 3월 3일 콘스탄티노플 인근의 산스테파노에서 맺어진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는 흑해 동쪽 연안의 카르스, 아르다한, 알라쉬케르트, 바야제트, 바툼(현재의 바투미)과 발칸 반도의 도부르자 지역을 얻었다. 러시아는 자국의 영토 병합을 이들 지역에 한정할 반면, 발칸 지역 재편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그대로 산스테파노 조약(Treaty of San Stefano)에 반영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59) Hovannisian(1997), 207-208.

60) 예컨대 카프카스 총독이었던 미하일(Михаил Николаевич) 대공이 알렉산드르 2세에게 보낸 1877년 4월 편지를 보면, 러시아군 점령지의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군을 위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쓰여 있다. 또한 카르스 지역에서 자원한 아르메니아인들을 징집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하고 있다(Bournoutian 1998: 439).

61) Ronald Grigor Suny(1997) "Eastern Armenians under Tsarist Rule" in Richard G. Hovannisian, ed., *The Armenian People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Vol. II, New York: St. Martin's Press, p. 126.

62) Hovannisian(1997), 208; Payaslian(2007), 116; Suny(1997), 127.

다 이 조약은 에게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거대한 불가리아 국가를 형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가리아는 2년간 러시아군의 점령 하에 놓여 러시아의 영향력 지역이 되었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영토는 확장되었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오스트리아-헝가리의 감독 하에 자치를 허용 받았다.<sup>63)</sup>

산스테파노 조약은 아르메니아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동 조약의 16조가 “투르크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아르메니아 점령 지역에서의 러시아군의 철수가 양국의 우호적 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충돌과 분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술탄 정부는 아르메니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역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개선과 개혁을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하며, 쿠르드인과 체르케스인으로부터 아르메니아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4)</sup>

산스테파노 조약은 유럽 열강이 오스만 제국과 맺은 여러 조약 중 아르메니아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룬 최초의 조약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아르메니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안타깝게도 러시아의 입장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문서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정황 증거로 러시아의 입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첫째, 러시아-투르크 전쟁 발발 당시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1870년대 러시아에서는 범슬라브주의가 팽배하였고 오스만 제국 치하의 슬라브 민족 기독교인들의 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발칸 지역에 국한되었다. 다른 유럽 열강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아르메니아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따라서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것은 알렉산드르 2세의 전쟁 포고문에서도 드러난다. 유럽 열강이 관심을 가지고 오스만 정부에게 개혁을 요구했던 “투르크의 억압받는 기독교 신민”에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아래의 발췌문에서 볼 수 있듯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의 기독교인만이 언급되고 있다.

63) Albrecht-Carrié(1958), 172.

64) 산스테파노 조약의 러시아어 문서는 Гейдаров(2011), T. 1, C. 187-203에 수록되어 있다. 산스테파노 조약 16조, 19조의 영문 본은 Bournoutian(1998), 443 참조. 산스테파노 조약 16조에는 오스만 제국의 개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후술하겠지만, 개혁의 내용은 조약 체결 이후 유럽 열강이 오스만 정부에게 보낸 외교 각서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투르크의 억압받는 기독교인 신민의 운명에 관심을 가져왔고 [...] 평화로운 협상과 유럽 열강의 공조 행동을 통해 동방의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 지난 2년 간 술탄 정부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기독교인들을 지방 당국의 독단적인 지배로부터 보호하는 개혁을 도입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했으나 [...] 투르크는 이를 거절함으로써 우리를 무력에 의존할 필요 하에 놓이게 만들었다.<sup>65)</sup>

둘째, 발칸의 위기로부터 러시아-투르크 전쟁 발발까지의 외교 관계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문제에 개입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 열강의 중재 외교, 유럽 열강의 공동 군사압력 행사 가능성 타진, 러시아의 단독적인 전쟁 수행에 대한 유럽 열강의 양해 구하기 등 전쟁 개시 전에 있었던 일련의 러시아 외교에서 아르메니아 문제가 논의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sup>66)</sup> 단적인 예로 1876년 12월 동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콘스탄티노플에서 유럽 열강 대사들의 회담이 열렸을 때, 아르메니아 문제도 같이 논의해 달라는 아르메니아 총대주교의 청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sup>67)</sup> 발칸 문제에 개입하되 유럽 열강의 반발을 사서는 안 되었던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독자적으로 아르메니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 문제는 러시아의 외교 의제에 들어있지 않았다.

셋째, 러시아가 산스테파노 조약에 아르메니아 관련 조항을 넣은 것은 러시

65) Edward Hertslet(1891) *The Map of Europe by Treaty: Showing the Various Political and Territorial Changes Which Have Taken Place Since the General Peace of 1814*, Vol. IV, London: Butterworths, pp. 2598-2599; Walker(1980), 108-109.

66) 러시아의 전쟁 발발 전 외교에 대해서는 Paul Miliukov *et al.*(1969), Vol. 3, 98-108 참조.

67) 콘스탄티노플 회담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아르메니아 총대주교청은 모든 유럽 열강에게 아르메니아 문제도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는 각서를 발송하였다(Gürün 1985: 76). 아르메니아 총대주교는 예치미아진의 아르메니아사도교회 카톨릭코스(catholicos)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르메니아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카톨릭코스가 용감하게 “자신들의 메시지를 기독교 국가들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서 기독교 국가는 암묵적으로 러시아 제국을 의미했고, 실제 카톨릭코스는 러시아 차르 알렉산드르 2세에게 청원을 냈다(Bournoutian 1998: 438-439). 카톨릭코스는 러시아령 아르메니아에 있는 아르메니아사도교회의 최고 수장을 지칭한다.

아 측의 외교적 구상이었다기보다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적극적인 청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콘스탄티노플의 아르메니아 총대주교청의 역할이 컸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쟁 초기에 아르메니아 총대주교청은 공식적으로는 오스만 제국의 편에 섰다. 그러나 플레브나가 함락되고 전세가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기울자 총대주교청은 러시아 측과 비밀리에 접촉을 시작하였다. 1878년 1월 아드리아노플에서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일 때, 총대주교청은 아드리아노플의 대주교에게 아르메니아 주에서의 자치 행정에 관한 특별 조항을 평화조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니콜라이 대공에게 청원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차르 알렉산드르 2세와 러시아 외상에게 청원서를 보냈다. 이후 산스테파노에서 평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총대주교가 직접 러시아 본부를 찾아가 니콜라이 대공에게 아르메니아 관련 조항을 평화조약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아르메니아사 문헌에서도 언급되고 있고, 터키 측 문헌에서도 확인된다.<sup>68)</sup>

넷째, 아르메니아인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에는 주 콘스탄티노플 러시아 대사였었던 이그나티예프(Н. П. Игнатьев)의 역할이 컸다.<sup>69)</sup> 영향력 있는 범슬라브주의자였던 이그나티예프는 아르메니아인이 슬라브 민족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이었기에 이들을 지지하였고,<sup>70)</sup> 이들의 청원을 조약에 반영하는 데 주된 역할을 했다. 한편 러시아-투르크 전쟁 당시 러시아군과 함께 전선에 나선 차르 알렉산드르 2세는 외교관이 아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그는 자신의 동생이자 발칸의 러시아군을 통솔하였던 니콜라이 대공을 크게 의지하였다. 또한 알렉산드르 2세를 전장에서 동행한 전쟁상 밀류틴(Д. А. Милютин)과 이그나티예프도 정책결정에 영향력이 컸다.<sup>71)</sup> 따라서 러시아-투르크 전쟁 당시 외교적 영향력이 더 컸던 이는 온건한 고르차코프 외상이 아니라 공세적인 이그나티예프였다. 실제 산스테파노

68) Hovannisian(1997), 208; Payaslian(2007), 116; Şimşir, ed.(1982), xiv-xv; Gürün(1985), 97-98.

69) 장군 출신인 이그나티예프는 외교부 아시아국장(1861-1864), 주 콘스탄티노플 대사(1864-1877), 내무상(1881-1882), 국무위원(1882-1908)을 역임했다. Kirakossian(2003), 81, 각주 27 참조.

70) Walker(1980), 64.

71) 1877년 당시 이미 79세였던 고르차코프 공은 부카레스트에 남아있었다. 러시아-투르크 전쟁 당시의 외교부의 무기력함과 작전참모부의 영향력 강화에 대해서는 Jelavich, eds.(1959), 36-37 참조.

조약 체결 시 오스만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하고 조약에 서명을 한 사람도 바로 이그나티예프였다. 따라서 이그나티예프의 아르메니아인 지지는 이들의 청원이 조약에 반영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산스테파노 조약 16조의 내용은 러시아의 보호 하에 자치 행정을 이루고자 했던 아르메니아인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르메니아인의 청원을 받은 니콜라이 대공은 아르메니아인에 대해 동정심을 표했고 휴전협정 초안에 아르메니아인 거주 주에서의 자치 행정에 관한 규정을 넣었다고 한다.<sup>72)</sup> 그러나 산스테파노 조약 16조에서는 아르메니아인의 자치 행정에 관한 내용은 없고 오직 오스만 정부의 개혁과 안전 보장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가 발칸의 슬라브 민족에게 처럼 아르메니아인에게도 자치를 허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난다.

한편 조약 16조 관련 러시아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다소 불명확하다. 조약 16조는 러시아군의 철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려하여 아르메니아인을 위한 개혁과 안전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읽힌다. 반면에 호바니시안은 이 조약이 개혁 실행 여부에 따라 러시아군의 철수가 조건부로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이 조약에 따라 로리스-멜리코프 장군 휘하의 러시아군은 기독교 신민들의 안전이 적절히 보장되었다고 알렉산드르 2세가 만족할 때까지 예르주룸에 주둔했을 것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73)</sup> 터키 학자인 귀린(K. Gürün)도 해당 지역에서 개혁이 실행되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철수하지 않았을 것이며, 예르주룸에 이르기까지 러시아군의 점령 하에 있던 지역이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해석한다.<sup>74)</sup>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개혁 실행보장을 빌미로 해당 지역에 군대를 계속 주둔시킬 속셈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영국도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72) Hovannisian(1997), 208. 그러나 최종 휴전협정에는 아르메니아 관련 조항이 없다 (Gürün 1985: 98).

73) Hovannisian(1997), 208-209. 워커도 러시아군의 주둔이 아르메니아 지역에서의 무법상태 유발을 방지했을 것이라 본다(Walker 1980: 115).

74) Gürün(1985), 98.



#### 4. 아르메니아 문제의 국제화(2): 베를린 회의와 유럽 열강의 개혁 요구

본 장에서는 산스테파노 조약을 통해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양국 간에 합의되었던 아르메니아 개혁이 유럽 열강 모두의 관심사로 확대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먼저 베를린 회의를 통해 산스테파노 조약이 베를린 조약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살펴본 후, 술탄 정부에게 베를린 조약 이행을 촉구하는 유럽 열강들의 외교적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 4.1. 베를린 회의와 베를린 조약

산스테파노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자 유럽 열강, 특히 영국은 발칸에서의 러시아의 약진에 큰 불만을 품게 되었다. 영국은 무엇보다 러시아 영향력 하에 있는 대(大)불가리아를 만드는 안을 수용할 수 없었다. 발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오스트리아-헝가리도 해당 지역에서의 러시아 영향력 확대를 깊이 우려하였기에 영국의 입장에 동조하였다. 영국은 산스테파노 조약이 1856년의 파리 조약, 1871년의 런던 협정의 원칙을 위반하다고 비난하면서, 동방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유럽회의를 개최할 것을 유럽 열강 각 국에 요구하였다.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적대적인 태도에 직면한 러시아는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독일 비스마르크(O. von Bismarck) 재상의 초대에 응하여 국제회의 개최에 동의하였다.

베를린회의 개최 이전에 영국은 비밀리에 오스트리아, 러시아와 사전협상을 하여 입장을 조율하였다. 오스트리아와의 협상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산스테파노 조약을 변경하려는 영국에게 외교적 지원을 하는 대신, 영국은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를 점령 통치하는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sup>75)</sup> 한편 러시아와의 협상에서는 러시아가 대(大)불가리아 안(案)을 포기하는 대신 영국은 러시아의 바툼, 베사라비아 합병을 인정하기로 의견이 교환되었다. 대신 러시아는 서 아르메니아의 더 많은 지역에서 철수하기로 동의했다.<sup>76)</sup>

75) 영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간 사전 협상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din Radušić(2011) “The Ottoman Wrong Horse?” in M. Hakan Yavuz, ed, *War and Diplomacy: The Russo-Turkish War of 1877–1878 and the Treaty of Berlin*, Salt Lake City: The University of Utah Press, pp. 176-181 참조.

76) Radušić(2011), 182; Arman J. Kirakossian(2008), 25-26. 산스테파노 조약 변경에

영국은 오스만 제국과도 비밀리에 협상을 했다. 영국이 술탄 정부와 6월 4일에 맺은 키프러스 협정(Cyprus Convention)에 따르면, 영국은 키프러스를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대신, 오스만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으로의 러시아의 침투를 막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여 술탄 정부를 도울 것을 약속했다.<sup>77)</sup> 반대급부로 술탄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기독교인 및 다른 신민들을 보호하고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양국 간에 합의된 대로 필요한 개혁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sup>78)</sup>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영국에 대한 진정한 양보는 개혁 도입의 약속이 아니라 키프러스 ‘임대’였다. 영국은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오스만 제국의 반(反)러시아 정서를 이용하여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킨 것이다. 영국은 키프러스를 획득함으로써 동지중해 지역에서의 자국의 우세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sup>79)</sup>

한편 키프러스 협정에서 주목할 점은 협정 내용에 아르메니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술탄 정부의 개혁은 “오스만 제국의 기독교인 및 다른 모든 신민”을 위한 개혁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었다. 또한 개혁의 실행여부는 술탄의 “약속”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행여부를 보장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것은 영국이 특별히 아르메니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영국은 아르메니아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을까? 영국은 러시아-투르크 전쟁이 발발한 이후, 동 아나톨리아의 문제를 철저히 지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즉 이 지역이 러시아에 병합되거나,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카르스의 함락 이후 레어드(A. H. Layard) 콘

대한 러시아-영국 합의서(1878.5.30)의 러시아어 문서는 Гейдаров(2011), Т. 1, С. 204-208 참조.

77) 키프러스 협정 1조는 “러시아가 바툼, 아르다한, 카르스, 그리고 최종 평화조약에 의해 술탄의 지배 하에 들어간 터키령 아시아 지역의 술탄이 소유한 어느 지역을 점령하려고 한다면” 영국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술탄을 도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키프러스 협정 원본은 Hertslet(1891), Vol. IV, pp. 2722-2723에 수록되어 있다.

78) Hovannisian(1997), 211.

79) 영국은 러시아의 아르메니아 지역 영토 획득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영토 양보를 받을 근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1878년 4월 솔즈베리 외상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러시아가 바툼을 얻게 될 경우 영국은 오스만 제국의 소아시아 영토에 가까운 한 섬이나 주둔지를 얻어야 한다고 쓰여 있다(Kirakossian 2008: 25).

스탄티노플 주재 영국 대사가 영국 외상 더비 경에게 보낸 1877년 12월 4일자 비밀문서를 보면, 그는 러시아가 아르메니아 지역을, 혹은 이 지역의 동쪽 일부를 합병할 경우의 영국의 이해관계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무슬림 주민에게 미칠 영향, 러시아가 페르시아나 소아시아 지역을 추가적으로 정복할 경우의 러시아의 전략적 이득, 영국의 육로를 통한 인도로의 대안적 통로 확보, 영국 상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이후, 그는 러시아의 해당 지역 점령이 영국의 국가이익에 배치된다고 결론지었다.<sup>80)</sup>

그의 견해는 아르메니아 문제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이것은 아르메니아 문제를 그 자체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 점령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는 것을 의미했다. 영국은 이미 자국의 외교 루트를 통해 러시아-투르크 전쟁 발발 이후 동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무질서와 소요 사태를 알고 있었지만, 아르메니아인의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산스테파노 조약 16조의 내용이 알려졌을 때, 영국은 이것을 해당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점령 의도라 해석하였다. 이것은 추후 베를린회의에서 16조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때, 영국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럽 열강들이 막후협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동안,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치 행정이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 산스테파노 조약 내용을 재검토하기 위해 베를린 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아르메니아 총대주교 네르세스(Nerses)와 아르메니아 민족회의는 내심 영국의 주도로 아르메니아인에게 자치 행정이 허용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 즉 아르메니아 지역에게도 레바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 주지사, 민사법원, 지역 자치 행정, 기독교-무슬림 통합 민병대, 모든 세금납부자 남성에게 대한 참정권, 지역의 필요에 따른 세입 사용 등이 허용되기를 바랐다. 이에 전임 총대주교 히리미안(M. Khrimian)이 이끄는 사절단을 유럽 각국의 수도로 파견하여 베를린 회의에 참석할 외교대표들에게 아르메니아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했다. 아르메니아 사절단은 런던, 파리, 베를린에서 정중히 접견

80) Foreign Office(이하 FO) 424/63, pp. 86-89, No. 124 in Şimşir, ed.(1982), 135-140. 예컨대 러시아가 아르메니아 지역을 병합할 경우 러시아는 흑해 연안의 트레비존드에서 알라쉬케르트, 바야제트를 거쳐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무역로를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영국은 이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Hovannisian 1997: 209).

되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 어느 나라도 아르메니아 사절단에게 뚜렷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sup>81)</sup>

베를린 회의는 1878년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달간 개최되었다. 유럽협조체제의 일원이자 유럽 열강으로 간주되는 영국,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6개국 전권대표 외에 오스만 제국, 페르시아 제국, 루마니아, 그리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의 발칸 지역 대표들이 참석했다.<sup>82)</sup> 그러나 회의의 주요 사항은 유럽 열강 전권대표 간의 비밀 회동에서 결정되었고 결정사항은 그 다음 날에나 공식 발표 되었다. 따라서 유럽 열강 6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 대표들은 회의 내용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유럽 열강의 일원이 아니며 전쟁의 패전국인 오스만 제국도 자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베를린회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sup>83)</sup> 한편 아르메니아 사절단도 아르메니아 자치 행정에 관한 안을 준비해서 베를린에 도착하였지만,<sup>84)</sup> 유럽 열강 중 어느 국가도 아르메니아 사절단을 주목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르메니아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때도 아르메니아 사절단은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sup>85)</sup>

베를린 회의는 단순히 산스테파노 조약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방문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것이었기에 유럽 열강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전권대표로 참석하였다.<sup>86)</sup> 베를린회의를 주재한 것은 비스마르크 독일 재상이

81) Walker(1980), 112; Hovannisian(1997), 209.

82) Kirakossian(2008), 27.

83) A. Gül Tokay(2007) "Ottoman Diplomacy at the Berlin Congress (June-July 1878)," in Ömer Turan, ed., *The Ottoman-Russian War of 1877-78*, Ankara: Middle East University. p. 248.

84) 아르메니아 사절단이 베를린 회의에 제출한 자치 행정안은 Marcel Léart(1913) *La Question Arménienne à la Lumière des Documents*, Paris: A. Challamel, pp. 28-30에 수록되어 있다. 터키어로 번역된 문서는 Uras(1976), 227-235를 보라. 우라스(E. Uras)의 터키어 번역문을 영어로 번역한 것은 Gürün(1985), 100-104에 있다.

85) Walker(1980), 112; Hovannisian(1997), 210; Tokay(2007), 252.

86) 영국에서는 디즈레일리 수상, 솔즈베리 외상과 주독 대사, 러시아에서는 고르차코프 외상, 쉬발로프 주영 대사, 우브리(П. Убри) 주독 대사, 독일에서는 비스마르크 재상, 빌로우(B. von Bülow) 외상과 주불 대사, 오스크리아-헝가리에서는 안드라시(G. Andrassy) 외상과 주독 대사, 프랑스에서는 워딩턴(W. H. Wadington) 외상과 주독 대사, 이탈리아에서는 코르티(L. Corti) 외상과 주독 대사 등이 참여하였다.

었지만, 실제 각종 협상을 주도한 것은 영국 외상 솔즈베리(R. A. Salisbury)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국은 이미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오스만 제국과 사전 협상을 거쳐 비밀협정이나 비밀의정서를 맺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회의를 자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용이했다. 반면 고르차코프 외상이 이끌었던 러시아 대표단이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나머지 유럽 열강 모두가 러시아에 대적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결속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sup>87)</sup> 회의를 주재하였던 비스마르크는 러시아와 불편한 전쟁을 벌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고르차코프 외상을 싫어하였고 공공연히 쉬발로프(П. А. Шувалов) 주영대사와 협의하는 것을 선호하였다.<sup>88)</sup>

베를린 회의에서 유럽 열강들의 최대 관심사는 발칸 문제였다. 발칸 반도 내 여러 민족들의 자치 혹은 독립 여부와 이들 국가(혹은 지역)들의 영토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이에 베를린회의의 대부분의 세션은 발칸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데 할애되었다. 불가리아는 불가리아, 동루멜리아, 마케도니아로 3등분 되었고, 각기 자치 공국, 반(半)자치 오스만령, 오스만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오스트리아-헝가리에 의해 임시적으로 점령 통치되기로 결정되었다. 이 안(案)은 오스만 제국의 반발을 샀지만 유럽 열강들 간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후라 오스만 제국은 이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 외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의 독립이 인정되었고, 이들의 영토가 약간씩 변경되었다. 러시아는 루마니아와 도부르자 지역과 베사라비아 지역을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베사라비아 지역을 얻었다.<sup>89)</sup>

반면에 오스만 제국의 소아시아 영토와 관련된 논의는 영국과 러시아 대표 간의 내밀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영국과 러시아는 사전 협의된 대로 카르스와 아르다한은 러시아에게 양도하고 알라쉬케르트와 바야제트는 오스만

87) Platonov(1925), 393.

88) 러시아 대표단의 명목상의 대표는 고르차코프 외상이었으나, 실제 모든 중요한 협상은 주영 대사였던 쉬발로프가 담당했다. 쉬발로프는 외교 능력이 뛰어나고 개인적 영향력도 커서 실제 그의 직위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큰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Jelavich, eds.(1959), 6, 71. 베를린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이그나티예프가 아니라 유화적인 쉬발로프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쉬발로프 대사는 고르차코프 외상과는 달리 러시아가 영국과의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Paul Miliukov *et al.*(1969), Vol. 3, 113.

89) 자세한 내용은 Albrecht-Carrié(1958), 173-174 참조.

제국에게 돌려주는 것에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했다. 그러나 바툼 문제를 두고는 영국과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영국은 바툼이 자유항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러시아가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하지 않으면 다다벨즈-보스포루스 해협이 현 지위를 변경하겠다고 위협했다.<sup>90)</sup> 디즈레일리(B. Disraeli) 수상과 고르차코프 외상, 그리고 솔즈베리 외상과 쉬발로프 주영대사 간의 긴 협상 끝에 결국 영국은 러시아를 설득하여 바툼을 자유항으로 만들었다.<sup>91)</sup>

영국과 러시아가 바툼 문제로 긴 협상을 했던 반면 아르메니아는 간략하게 다루었다. 양 측은 개혁의 필요성에는 쉽게 합의를 했다. 그러나 7월 4일 산스테파노 조약 16조를 검토하는 세션에서 솔즈베리 외상은 러시아군의 철수와 관련된 구절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러시아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완전히 새로운 조항을 넣겠다고 위협했다. 7월 8일 오스만 및 영국 사절단을 대변하여 솔즈베리 외상이 제출한 초안에서 해당 구절이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러시아는 솔즈베리 외상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sup>92)</sup> 한편 아르메니아 사절단이 제출한 자치 행정 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특히나 영국의 태도 때문이었다.<sup>93)</sup> 산스테파노 16조 개정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의 주요 관심사는 아르메니아 개혁이 아니라 러시아군의 철수였다. 솔즈베리 외상은 이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오스만령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였다.

이처럼 영국은 베를린 회의를 통해 자국의 입장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한 산스테파노 조약의 모든 조항을 변경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산스테파노 조약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조항이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정되었다. 무엇보다 불가리아의 영토가 크게 축소되었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점령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오스만 제

90) 영국은 러시아가 바툼을 합병한 후 이 항구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우려했다. 자유항이라는 의미는 항구를 상업적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러시아가 바툼 항구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툼 문제를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 협상에 대해서는 Medlicott(1938), 101-118 참조.

91) 고르차코프 외상은 베를린 회의에서의 대부분의 협상을 쉬발로프 대사에게 맡겼다. 그러나 바툼 문제만큼은 본인이 직접 디즈레일리 영국 수장과 협상하겠다고 나섰다(Medlicott 1938: 107).

92) Kirakossian(2008), 27.

93) Gürün(1985), 104. 영국과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주에 아르메니아인 주지사를 임명하는 총대주교의 제안을 받기지 않았다(Tokay 2007: 252).

국의 동쪽 국경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알라쉬케르트와 바야제트가 다시 오스만 영토가 되었고, 러시아군은 술탄 정부의 개혁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아르메니아 점령 지역에서 철수해야 했다.

베를린 회의는 1878년 7월 13일 베를린 조약 체결과 함께 종료되었다.<sup>94)</sup> 베를린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중요 결정사항을 담고 있는 베를린 조약은 오스만 제국 내 수많은 신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조약이었다. 이것은 투르크인, 불가리아인을 포함한 발칸의 모든 기독교인, 보스니아 무슬림뿐 아니라 아르메니아인들에게도 중요한 조약이었다.

베를린 조약에서 아르메니아와 직접 관련된 조항은 61조이다. 러시아군의 점령 하에 술탄 정부의 개혁을 보장하려던 산스테파노 조약 16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술탄 정부는 아르메니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역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개선과 개혁을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하며, 쿠르드인과 체르케스인으로부터 아르메니아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술탄 정부는 이러한 취지로 채택한 조치들을 정기적으로 열강에게 알리고, 열강은 조치들의 적용을 감독한다.

산스테파노 조약 16조와 비교해 볼 때, 러시아군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고 대신 술탄 정부의 개혁과 안전 보장 조치 이행을 감독하는 권한이 유럽 열강에게 주어진 점이 주된 변경 내용이다. 이로서 술탄 정부의 아르메니아인을 위한 개혁은 러시아만의 독점적 관심사가 아니라 유럽 열강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동부 국경에 관한 베를린 조약 58조와 60조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아르다한, 카르스, 바툼과 울티가 러시아에게 양도된 반면, 산스테파노 조약 19조에서 러시아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던 알라쉬케르트 계곡과 바야제트 마을이 다시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되었기 때문이다.

베를린 회의의 결과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크게 실망스러운 것이었음은 말

94) 베를린 조약 원본(불어)은 Medlicott(1938), 409-419, 영국 의회에 제출된 영어 번역본은 Hertslet(1891), Vol. IV, pp. 2764-2798에 수록되어 있다. 베를린 조약의 러시아어 본은 Гейдаров(2011), T. 1, C. 209-234 참조. 아르메니아 관련 조항인 베를린 조약 58조, 60조, 61조 영문 본은 Bournoutian(1998), 445에도 수록되어 있다.

할 필요가 없다. 베를린 조약 체결 후, 그 내용을 알게 된 아르메니아 사절단은 한탄을 금치 못하였다. 조약의 내용이 아르메니아 지도부가 간절히 원했던 자치 행정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아르메니아 사절단은 자신들의 온건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결국 자신들이 “기만”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절단은 쓰디쓴 교훈을 얻고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갔다.<sup>95)</sup>

베를린 조약은 아르메니아인에게 자치 행정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첫째, 러시아 제국에 편입될 줄 알았던 알라쉬케르트와 바야제트가 다시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되고 러시아군이 에르주룸을 위시하여 이들 점령 지역에서 곧 철수해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던 아르메니아인들은 무슬림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러시아-투르크 전쟁 기간 중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군을 환영하였고 일부는 러시아군에 합류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러시아군의 철수는 추후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보복행위가 발생할 경우 아르메니아인들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둘째, 베를린 조약 61조의 규정만으로 아르메니아 지역에서의 술탄 정부의 개혁을 보장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다. 이미 수차례 기만적인 개혁 약속을 해왔던 술탄 정부가 유럽 열강에 대한 보고 의무만으로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다. 술탄 정부의 아르메니아 개혁이 유럽 열강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지만, 이것이 아르메니아 개혁을 보장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미지수였다. 아가일 공이 언급하였듯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다”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sup>96)</sup> 아가일 공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 불과 몇 년이 걸리지 않았다.

95) 사절단을 이끌었던 히리미안은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가서 쿨 카푸(Kum Kapu) 지역 아르메니아 성당에서 매우 유명한 설교를 하였다.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자유라는 요리’를 함께 먹는데, 발칸 민족들은 금속 수저를 가져와서 맛있는 스투를 먹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인들은 종이 청원서만을 가지고 있었다. 종이 수저로 스투를 뜨자 종이는 녹고 아르메니아인은 아무 것도 받지 못했다.” 은유로 가득 찬 설교였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아르메니아인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철 수저”를 만들어야 한다는 혁명적 요구였다(Hovannisian 1997: 211).

96) George Douglas Campbell(1896) *Our Responsibilities for Turkey: Facts and Memories of Forty years*, London: John Murray, p. 75. Hovannisian(1997), 210에서 재인용.



#### 4.2. 유럽 열강의 아르메니아 개혁 요구

베를린 조약에서의 퇴보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 지도부는 오스만 제국의 개혁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않았다. 이들은 러시아보다는 영국이 더 문명화되고 발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개혁을 감독하는데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총대주교 네르세스는 필요한 개혁이 베를린 조약 61조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아르메니아 민족회의에서 연설했다. 또한 아르메니아인을 대표해서 그는 술탄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며, 아르메니아인의 불행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오스만 제국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sup>97)</sup>

그러나 압둘하미드 2세 치하의 술탄 정부는 아르메니아 지역에 개혁을 도입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압둘하미드 2세의 통치 시기(1877-1908)는 보수 반동의 시기로서,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적 정책이 두드러졌던 시기이다.<sup>98)</sup> 따라서 앞서의 탄지마트 시기와는 달리, 이 시기의 술탄 정부는 오스만 제국의 자유주의적 개혁을 더 이상 도입하려 하지 않았다. 아르메니아 지역 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베를린 회의 직후 술탄 정부가 도입한 유일한 행정개혁은 아르메니아인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회의 종료 후 두 달여가 지나서 술탄 정부는 유럽 열강들이 아르메니아 개혁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하였고, 아베딘 파샤의 행정개혁안을 실행에 옮겼다.<sup>99)</sup> 즉 투르크인, 쿠르드인 등이 거주하는 지역을 아르메니아인 거주 지역에 병합함으로써 각 주에서 아르메니아인이 절대 다수를 넘지 않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베를린 조약 61조가 언급한 “아르메니아인이 거주하는 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만들려는 것이었다.<sup>100)</sup>

동시에 아나톨리아 동부 지역에서는 베를린 회의 이후 변경된 동부 국경선을 따라 대규모 이주가 일어났다. 오스만 제국의 영토로 남게 된 반, 비틀리스, 에르주룸에서 약 2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철수하는 러시아군을 따

97) Hovannisian(1997), 211-212.

98) 1877년 오스만 제국 헌법을 정지시키고 스스로 전제정치를 시작한 이후 1908년 청년터키당의 혁명으로 권좌에서 추출될 때까지 압둘하미드 2세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99) Bournoutian(1998), 446.

100) Walker(1980), 122; Kirakossian(2008), 28.

라 러시아 제국으로 들어간 반면,<sup>101)</sup> 러시아에 병합된 카르스, 아르다한, 바툼에서 투르크계 무슬림이 동 아나톨리아로 이주하였다.<sup>102)</sup> 무슬림의 아르메니아 지역으로의 대규모 이주는 이 지역의 민족, 종교별 인구 구성비에 변화를 초래했다.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아르메니아인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했고, 아르메니아인에 의한 자치 행정 실행 가능성을 더욱 낮게 만들었다.

한편 술탄 정부는 지역 차원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소요를 막지 못했다. 영국 외교문서가 보여주듯이, 러시아군의 철수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르메니아인들은 예상되는 보복에 크게 동요했다.<sup>103)</sup> 1878년 가을 러시아군이 철수하자 아르메니아인을 공격하고 가옥과 마을을 파괴하는 일이 아나톨리아 동부 지역 일대에 퍼져나갔다. 이러한 공격은 주로 쿠르드인 무법자들에 의해 자행되었지만, 투르크 무슬림이나 지방정부 당국, 오스만군에 의해서도 행해졌다.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공격은 1879년, 1880년에도 계속되었다. 디아르베키르, 하르푸트, 무쉬, 반, 에르주룸의 상황에 대한 영국 영사들의 보고서나 아르메니아인들의 청원서를 보면 아르메니아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04)</sup> 이것은 베를린 조약 61조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인의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101) 이 외에 러시아에 병합된 지역에 살던 약 1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러시아 제국의 신민이 되었다.

102) 보다 자세한 내용은 Mustafa Tauriverdi(2011) "The Treaty of Berlin and the Tragedy of the Settlers from the Three Cities," in M. Hakan Yavuz, ed., *War and Diplomacy: The Russo-Turkish War of 1877-1878 and the Treaty of Berlin*, Salt Lake City: The University of Utah Press, pp. 449-478 참조. 무슬림 이주에 대한 영국 영사들의 보고 내용은 Burdett, ed.(1998) 113-125, 131 참조.

103) 예컨대 1878년 9월 14일 레어드 대사가 솔즈베리 외상에게 보낸 전신을 보면, 러시아군의 철수로 아르메니아의 기독교인들이 위협에 처해있으며 공황상태에 빠진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군을 따라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다. FO 424/74, p. 175, No. 281 in Şimşir, ed.(1982), 206-207. 다음 날 보낸 전신에서는 아르메니아의 상황이 위태롭기 때문에 에르주룸에 영사를 지체 없이 파견해야 한다고 레어드 대사는 요청하고 있다. 그는 잔학행위가 이미 보고되었으며 아르메니아인들이 공황상태에 빠져있다고 보고했다. FO 424/74, p. 185, No. 302 in Şimşir, ed.(1982), 207.

104) 아르메니아 지역에 파견된 영국 영사들은 해당 지역에서 일어난 약탈과 소요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Kirakossian(2003), 86-108이나 Şimşir, ed.(1982) 및 Şimşir, ed.(1983) 자료 참조.

이 시기에 베를린 조약 61조에 따라 술탄 정부가 개혁을 실행하고 아르메니아인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행사한 것은 영국이었다. 러시아는 베를린 회의 이후 자국의 외교적 패배와 고립에 크게 낙담하였고, 따라서 아르메니아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자 하지 않았다.<sup>105)</sup> 이제 아르메니아 개혁 보장에 대한 국제적 책임은 영국에게 돌아갔다. 영국은 오스만 정부와 베를린 조약뿐 아니라 키프러스 협정까지 맺어 놓았기 때문에 개혁을 요구하기 유리한 입장이었다.

아르메니아인을 위한 개혁 요구는 솔즈베리 외상의 대 오스만투르크 정책 과도 잘 들어맞았다. 솔즈베리는 오스만 제국의 유지가 러시아의 팽창을 막아 주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오스만 제국의 안전과 재건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유럽 지역에서의 오스만 제국의 만족할만한 군사적 국경 확보, 영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오스만 제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 보장,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내부 개혁을 통해 보장될 것이었다.<sup>106)</sup>

영국은 오스만 정부에게 베를린 조약 이행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군사적 수단보다는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고자 했다. 이에 영국은 베를린회의 이후 아나톨리아 지역 여러 도시에 영사를 파견했는데, 예르주룸, 반, 시바스에도 영사가 파견되었다.<sup>107)</sup> 이들 영사들의 지위와 업무는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었지만, 대체로 아나톨리아 지역 상황을 콘스탄티노플의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sup>108)</sup> 이들은 담당 지역의 아르메니아인 상황, 지방

105) 베를린회의 이후 러시아는 영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를 깊이 불신하였고 베를린 회의를 주재하였던 독일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방시킨 발칸의 슬라브 국가들, 특히 불가리아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Platonov(1925), 393-394.

106) Medlicott(1938), 290.

107) 영국 외무부는 윌슨(C. W. Wilson) 대령을 아나톨리아 지역을 총괄하는 총영사로, 트로터(H. Trotter) 소령을 예르주룸 영사로, 클레이톤(E. Clayton) 대위와 에베레트(W. Everett) 대위를 각기 반과 예르주룸의 부영사로 임명하였다. 윌슨 총영사는 시바스에, 윌슨 총영사 휘하의 4명의 부영사는 각기 부르사, 코니에, 카이세리, 카스타무니에 파견되었다. 카이세리와 카스타무니에 있던 부영사관은 후에 아이딘과 아다나로 옮겨졌다(Medlicott 1938: 305-306). 참고로 영국은 1836년부터 예르주룸에 영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108) 아나톨리아 지역에 파견된 총영사, 영사, 부영사는 모두 전문 외교관이 아니라 군인 출신이었다. 메들리코트는 이것을 당시 이 지역의 주된 문제가 법과 질서를

행정부의 활동, 민심의 동향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했다.<sup>109)</sup> 또한 1879년 오스만 정부가 아르메니아 지역 담당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을 때, 영국 영사들은 투르크 개혁위원들의 현장 실사에 동행하기도 했다.<sup>110)</sup>

한편 레어드 대사는 지역 동향에 대한 영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스만 정부에게 개혁을 실행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일에 대해 항의하거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개혁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1879년 10월 영국은 매우 강력하게 오스만 정부를 압박하였다. 레어드 대사는 오스만 제국의 수상을 만나 개혁이 즉각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영국 정부는 투르크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오스만 제국은 당장 위협에 빠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였다.<sup>111)</sup> 동시에 디즈레일리 내각은 영국 함대를 출동시켰다. 그러나 이 모든 압박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실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오스만 정부의 불신으로 인해 영국은 오스만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였고 1880년 1월경에는 솔즈베리 외상조차도 더 이상의 노력을 포기하였다.<sup>112)</sup>

1880년 4월 자유당 정권의 글래드스톤(W. Gladstone) 내각이 들어서자 영국 외교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디즈레일리 내각의 친오스만투르크 정책은 글래드스톤 내각의 친아르메니아 정책으로 바뀌었다. 한편 글래드스톤 수상은 전임자였던 디즈레일리 수상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영국의 과도한 외교적 의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르메니아 문제도 영국의 독자적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럽 강대국들과의 조율된 행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5월 영국 그랜빌(G. Granville) 외상이 유럽 각국에 있는 영국 대사들에게

유지하는 것이었고 지역의 상황이 매우 험했기 때문에 민간 외교관보다 군인 출신이 더 적합했다고 설명한다(Medicott 1938: 306). 그러나 워커는 이들의 주된 업무가 군사 정보 수집이었고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다루는 일은 부차적인 일이었다고 보았다(Walker 1980: 121).

109) 일례로 1880년 2월 7일 에베레트 부영사가 트로터 영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아르메니아인들의 민심이 러시아 편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FO 424/106, p. 195, No. 91/1 in Şimşir, ed.(1982), 679-680. 1880년부터는 이와 유사한 보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110) Medicott(1938), 324-326.

111) FO 424/88, pp. 232-233, No. 289 in Şimşir, ed.(1982), 575.

112) Medicott(1938), 342-345.

보낸 회람장에 따르면, 베를린 조약의 여러 조항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유럽의 이익이며, 모든 유럽 열강의 조율된 노력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sup>113)</sup> 이어 영국 정부는 콘스탄티노플의 각 국 외교사절들을 통해 술탄 정부에게 공동 각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의 제안에 따라 6월 11일 콘스탄티노플 주재 유럽 열강 대사들은 술탄 정부에게 공동 각서를 제출하였다. 이 각서에서 유럽 열강은 술탄 정부의 베를린 조약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투르크와 그리스 간, 투르크와 몬테네그로 간 국경선 확정 문제와 더불어 아르메니아인 거주 지역에서의 개혁 문제를 언급하였다. 베를린 조약 61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동안 아르메니아인 거주 지역의 상황이 참을 수 없을 지경에 계속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술탄 정부가 지체 없이 개혁을 이행하고 구체적인 개혁 조치들을 세세하게 유럽 열강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sup>114)</sup>

그러나 오스만 정부의 7월 5일자 공식 답신 내용을 보면, 오스만 정부의 반응은 기만적이고 미온적이었다. 특히 이 답신에서 아베딘 파샤 외상은 아르메니아인이 해당 지역에서 1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sup>115)</sup> 이것은 이 지역 인구 구성비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다. 영국 및 기타 유럽 열강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인구수를 모른 채 오스만 정부를 계속 압박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고셴(G. J. Goschen) 콘스탄티노플 주재 영국 대사는 아나톨리아 지역의 영국 영사들, 아르메니아 총대주교청 등을 통해 아르메니아 지역의 대략적인 인구수를 조사하는 한편, 유럽 열강 대사들과 공동행동 방안을 조율하였다.

9월 7일 콘스탄티노플 주재 유럽 열강 대사들은 각기 자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오스만 정부에 공동각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 공동각서는 6월 11일 각서와는 달리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적시하고 있다. 먼저 각 지역

113) Great Britain, Foreign Office, *Turkey*, No. 7 (1880), pp. 1-2, No. 3 in Şimşir, ed.(1983), 3-4.

114) FO 424/99, pp. 230-231, No. 499/1; FO 424/99, pp. 231-232, No. 499/2 in Şimşir, ed.(1983), 39-41.

115) 아베딘 파샤가 고셴 대사에게 보낸 답신은 FO 424/106, pp. 515-516, No. 256 in Şimşir, ed.(1983), 75-78 참조. 아베딘 파샤는 반, 디아르베키르, 비틀리스, 에르주рум, 시바스 지역의 아르메니아인은 전체 인구의 17%인 반면, 무슬림은 79%라고 답하였다.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위원회에 따르면 감지할 수 있는 변화가 없다는 점, 영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 개혁, 헌병대 설치, 경찰 개선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쿠르드족과 체르케스인 무리들의 과도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아직도 제안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아르메니아인들의 재산, 명예, 생명을 위협하는 괴롭힘을 중단시킬 강력하고도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 열강들은 아르메니아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개혁 실천, 쿠르드인의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재정 시스템 실행, 해당 지역 총독의 임기 보장과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열강들은 이러한 개혁 조치들이 그들의 감독 하에 실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sup>116)</sup> 그러나 유럽 열강의 공동각서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정부는 명확한 제안이나 어떠한 보장도 없이 모호한 약속만으로 가득 찬 답신을 10월 3일에 보내왔다.<sup>117)</sup>

이에 고센 대사는 오스만 정부에게 제안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는 아르메니아 자치 행정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고,<sup>118)</sup> 대신 아르메니아 지역 개혁에 대한 유럽 열강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가능한 방안으로 고려했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직접적인 관리감독 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술탄에게 제시할 새로운 개혁 방안이 필요했는데, 윌슨 총영사는 유럽-투르크 혼합 위원회를 조직하고 레바논 법령에 기초해서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sup>119)</sup> 한편 1880년 11월부터 아르메니아인들의 무장 가능성, 동 아르메니아인들의 지원,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영사 보고들이 계속 콘스탄티노플로 들어왔다. 따라서 영국의 입장에서는, 아르메니아인의 고충을 덜어주고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스만

116) 불어로 된 원본은 FO 424/107, pp. 191-194, No. 113/1 in Şimşir, ed.(1983), 113-118; 영문 번역본은 Great Britain, Foreign Office, *Turkey*, No. 23(1880), pp. 279-282 in Şimşir, ed.(1983), 119-124 참조.

117) FO 424/107, pp. 244-245, No. 140 in Şimşir, ed.(1983), 140-142.

118) 7월 6일 고센 대사가 그랜빌 외상에게 보낸 기밀문서를 보면, 고센 대사는 아나톨리아 지역 총영사인 윌슨 대령의 견해를 인용하여 아르메니아 자치 주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했다. 윌슨에 따르면, 아르메니아인들은 충분히 치밀한 조직이 아니며, 외부의 도움 없이 무슬림들에 대해 자신들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FO 424/106, pp. 549-550, No. 273 in Şimşir, ed.(1983), 78-81.

119) FO 424/107, pp. 290-291, No. 163/1 in Şimşir, ed.(1983), 144-146.

정부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 되었다.

1881년 영국 정부는 다시 한 번 아르메니아 문제를 유럽 열강의 외교 안건으로 다루고자 했다. 그러나 유럽 열강들의 이견으로 인해 공동행동은 쉽지 않았다. 1월 그랜빌 외무장관은 유럽 열강에게 반 지역에서의 투르크 관리들의 아르메니아인 취급 방식에 대해 공동으로 항의하자고 제안하였다.<sup>120)</sup> 그러나 그의 제안에 러시아와 이탈리아는 긍정적으로 답신을 하였지만,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는 그랜빌의 제안을 거절하였다.<sup>121)</sup> 결국 유럽 열강의 공동 항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5월 말 콘스탄티노플 주재 영국 대사가 더퍼린(F. Dufferin)으로 교체된 후, 더퍼린은 아르메니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방안으로 고등판무관 임명을 추진하였다. 9월 9일 더퍼린 영국 대사의 후원 하에 콘스탄티노플의 유럽 대사들이 아르메니아 문제로 회동을 가졌을 때, 더퍼린 대사는 오스만 정부에 제출할 제안서를 설명하면서 공동각서 채택을 제안하였다. 그는 능력 있는 행정가를 고등판무관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개혁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열강 대사들은 그의 제안서에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공동 각서 제출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다. 결국 노비코프(M. Новиков) 러시아 대사와 티쏘(M. Tissot) 프랑스 대사의 제안에 따라 공동각서 대신 개별적인 구두통첩(note-verbale) 형식을 취하기로 결정되었다.<sup>122)</sup>

다른 유럽 대사들의 동의 하에 더퍼린 영국 대사는 9월 15일 술탄에게 이러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압둘하미드 2세는 고등판무관 임명 제안에 흥미를 보이며, 한 달 안에 고등판무관을 임명하겠다고 영국 대사에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술탄의 약속은 늘 그랬듯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영국 정부는 유럽 열강과 공조하여 오스만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려 하였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의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오스만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120) FO 424/122, p. 7, No. 5 in Şimşir, ed.(1983), 178-179.

121)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는 협조는 하되, 이 사건이 공동행동을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답하였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그리스-투르크 국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르메니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Kirakossian(2008), 32; 관련 문서는 Şimşir, ed.(1983), 179-184, 187, 194-195에 수록되어 있다.

122) Kirakossian(2003), 131-132; 9월 9일 회담 내용은 더퍼린 대사가 그랜빌 외상에게 보낸 문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FO 424/123, pp. 160-163, No. 113 in Şimşir, ed.(1983), 306-310.

맺고 있던 독일은 자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은 아르메니아 문제로 오스만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위험성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헝가리는 독일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자국은 아르메니아 문제 개입에 관심이 없으며 더 이상 오스만 정부에 대한 어떠한 압력에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sup>123)</sup>

유럽 열강과 공조하여 아르메니아 개혁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영국의 마지막 시도는 1882년 초에 있었다. 2월 9일 더퍼린 영국 대사는 그 동안 노비코프 러시아 대사와 함께 수정·보완해온 개혁 방안 초안을 유럽 열강 대사들에게 제출하였다. 유럽 열강 대사들은 이 초안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3월 말 더퍼린 대사가 공동행동을 요청하자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 대사는 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동행동을 거부하였다. 결국 유럽 열강의 공동행동은 무산되었다.<sup>124)</sup> 한편 1882년 여름 이집트 점령을 완료한 영국은 오스만 정부와의 또 다른 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아르메니아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다. 이에 1882년 이후 14년 동안 유럽 열강은 아르메니아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아르메니아 문제의 내용과 등장 배경을 살펴본 후, 1877-78 러시아-투르크 전쟁을 전후로 하여 아르메니아 문제가 유럽 열강의 외교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아르메니아 문제 국제화의 핵심적 사건이었던 산스테파노 조약 및 베를린 조약의 체결 과정과 그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는 한편, 이와 관련된 러시아, 영국, 그리고 아르메니아인들의 입장과 이들 간의 상호 작용과 외교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 아나톨리아 농촌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오스만 제국 지배 하에서 경제적 착취와 기독교인으로서의 차별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발칸의 기독교 민족들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밀집되어 있지 않고 무슬

123) Kirakossian(2003), 132-136.

124) Kirakossian(2003), 138-139.



림들과 섞여 살고 있었다. 이것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르메니아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투르크 전쟁과 베를린 조약의 여파로 더욱 악화되었고, 훗날 아르메니아 학살 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였다. 한편 러시아-투르크 전쟁 시기에 한정해서 논하자면, 아르메니아 문제는 발칸의 문제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고, 따라서 아르메니아 문제 해결에 유리한 국제적 여론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은 이 시기에 아르메니아 문제가 유럽 열강의 국제적 개입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낮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아르메니아 문제가 국제화되는 초기 과정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유럽 열강의 외교적 전략에 의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유럽 열강의 개입을 원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적극적인 호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발칸의 세르비아인이나 불가리아인과 달리, 아르메니아인들은 봉기나 반란의 방식이 아니라 외교적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풀려 했다. 즉 유럽 열강의 보호나 지원을 받아 아르메니아인들의 자치 행정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성과도 없지 않았지만, 그 한계도 분명했다. 아르메니아인을 위한 개혁을 국제 조약에 명문화시킨 것은 성과라 할 수 있지만, 오스만 정부가 국제조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유럽 열강의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도 드러난다. 여기서 유럽 열강의 개입의 정도나 진정성을 과대평가한 것, 또한 오스만 정부의 저항의 정도를 과소평가한 것은 아르메니아인 입장에서는 오류라 할 수 있다.

한편 산스테파노 조약과 베를린 조약 체결 과정을 보면, 당시 유럽 열강들이 아르메니아 문제 그 자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스테파노 조약에 아르메니아 관련 조항을 넣었던 러시아조차도 순수한 의미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아르메니아 문제를 해결하려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러시아군의 점령이라는 조건이 보여주듯이, 아르메니아 문제가 러시아의 군사 전략적 관점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다고 말하기 힘들다. 또한 러시아에게 아르메니아 문제는 자국의 이해관계가 결정적으로 걸려있는 최우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러시아는 유럽 열강의 반대에 부딪치자 쉽게 아르메니아를 포기한 것이고, 아르메니아 대신 바툼을 선택한 것이다. 한편 영국은 아르메니아 문제를 철저히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세력 균형의 관점에서 보았다. 러시아의 군사적 점령 하에 아르메니아 개혁을 보장하려던 안에 대해 영국이 반대한 것도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

는 것을 차단하려던 것이었다. 아르메니아 개혁을 유럽 열강 공동의 감독 하에 둔 것도 이 문제를 러시아의 독점적 관심사로 두지 않으려는 영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아르메니아 문제가 국제조약에 명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럽 열강들의 적극적인 개입 의사가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셋째, 일반적으로 아르메니아사 연구에서는 1870년대의 아르메니아 문제 해결 실패를 유럽 열강의 무책임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를린 조약 체결 이후 베를린 조약을 이행하려는 유럽 열강의 노력은 적지 않았다. 특히 영국은, 디즈레일리 내각과 글래드스톤 내각이 각기 양자적, 다자적 접근을 했다는 데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오스만 정부에게 아르메니아 지역의 개혁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끊임없이 우려하면서도, 영국은 러시아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공조했다.

그러나 베를린 조약 체결 이후 몇 년간의 유럽 열강의 실패한 외교가 보여주었듯이, 군사력이 동원되지 않는 외교적 방식만으로는 오스만 정부를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 또한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산스테파노 조약 16조가 베를린 조약 61조로 변경됨으로써 오스만 정부의 아르메니아 개혁이 유럽 열강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지만, 이것 자체가 아르메니아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실제 유럽 열강 각국의 아르메니아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그 격차가 매우 컸고, 각기 자국의 대오스만투르크 외교 틀 안에서 아르메니아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유럽 열강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은 1882년 이후 유럽 열강이 아르메니아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자료 접근이 어려워서 러시아나 아르메니아에서 출판된 자료들을 다 보지 못한 점, 그리고 언어의 장벽으로 터키어 저서들을 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후속 연구가 이를 보완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 참고문헌

- 김용구(2012)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신동혁(2016) 「19세기 카프카스 전쟁과 체르케스 민족의 이주 문제」, 『카프카스 역사와 지정학: 전쟁, 분쟁, 그리고 이념』,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사업단 엮음, 민속원.
- Арш, Г. Л.(1978) *Русско-турецкая война 1877–1878 гг. и Балканы*, М.: Наука.
- Гейдаров, Тале(2011) “Армянский вопрос” на Кавказе: по материалам Российских архивов и изданий, 1724–1914, в 3 томах,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Академия исслед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 Жигарев, Сергей(1896) *Русская Политика в восточном вопросе*, Т. 2, М.: Университетская типография.
- Карасев, А. В., В. И. Косик и И. Ф. Макарова(2006) *Россия и Болгария: к 125-летию русско-турецкая война 1877–1878 гг.*, М.: Конти.
- Киракосян, А. Дж.(1990)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и Армянский вопрос: 90-е годы XIX века*, Ереван: Айастан.
- Тунян, В. Г.(1997) *Россия и Армения 1878–1897 гг.*, Ереван: Амарас.  
 \_\_\_\_\_(1998) *Россия и Армянский вопрос*, Ереван: Амарас.
- Albrecht-Carrié, René(1958) *A Diplomatic History of Europe Since the Congress of Vienna*, New York: Harper & Brothers.
- Barsoumian, Hagop(1997) “The Eastern Question and the Tanzimat Era,” in Richard G. Hovannisian, ed., *The Armenian People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Vol. II,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175-201.
- Bournoutian, George A.(2012) *A Concise History of the Armenian People*, Costa Mesa: Mazda.  
 \_\_\_\_\_, ed.(1998) *Russia and the Armenians of Transcaucasia, 1797–1889: A Documentary Record*, Costa Mesa: Mazda.
- Burdett, Anita L. P., ed.(1998) *Armenia: Political and Ethnic Boundaries 1878–1948*, Chippenham: Antony Rowe Ltd.
- Campbell, George Douglas(1896) *Our Responsibilities for Turkey: Facts and*

- Memories of Forty years*, London: John Murray.
- Dennis, Brad(2011) “Patterns of Conflict and Violence in Eastern Anatolia Leading Up to the Russo-Turkish War and the Treaty of Berlin,” in M. Hakan Yavuz, ed., *War and Diplomacy: The Russo-Turkish War of 1877–1878 and the Treaty of Berlin*, Salt Lake City: The University of Utah Press, pp. 273-301.
- Gürün, Kamuran(1985) *The Armenian File: The Myth of Innocence Exposed*, London, Nicosia and Istanbul: K. Rustem & Bro. and Weidenfeld & Nicolson Ltd.
- Hertslet, Edward(1891) *The Map of Europe by Treaty: Showing the Various Political and Territorial Changes Which Have Taken Place Since the General Peace of 1814*, Vol. IV, London: Butterworths.
- Heydarov, Tale, Janice Farrell and Ian Peart, eds.(2011) *The Armenian Question in the Caucasus: Russian Archive Documents and Publications*, Vol. 1-3, Reading: Ithaca Press.
- Hovannisian, Richard G.(1967) *Armenia on the Road to Independence, 1918*,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97) “The Armenian Question in the Ottoman Empire, 1876–1914” in Richard G. Hovannisian, ed., *The Armenian People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Vol. II,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203-238.
- Jelavich, Charles and Barbara, eds.(1959) *Russia in the East 1876–1880: The Russo-Turkish War and the Kuldja Crisis as Seen through the Letters of A. G. Jomini to N. K. Giers*, Leiden: E. J. Brill.
- Kirakossian, Arman J.(2003) *British Diplomacy and the Armenian Question: From the 1830s to 1914*, Princeton: Gomidas Insitute.
- \_\_\_\_\_ (2008) *The Armenian Massacres, 1894–1896: British Media Testimony*, Dearborn, MI: Armenian Research Center.
- Léart, Marcel(1913) *La Question Arménienne à la Lumière des Documents*, Paris: A. Challamel.
- Marriott, J. A. R.(1940) *The Eastern Question: An Historical Study in European Diplomacy*, Oxford: Clarendon Press.

- Medlicott, W. N.(1938) *The Congress of Berlin and After: A Diplomatic History of the Near Eastern Settlement 1878-1880*, London: Methuen & Co.
- Miliukov, Paul, Charles Seignobos and L. Eisenmann(1969) *History of Russia*, Vol. 2-3, New York: Funk & Wagnalls.
- Millan, Richard(1979) *Britain and the Eastern Question 1875-1878*, Oxford: Clarendon Press.
- Payaslian, Simon(2005) *United States Policy Toward the Armenian Question and the Armenian Genocid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_\_\_\_\_ (2007) *The History of Armenia: From the Origins to the Presen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Platonov, S. F.(1925) *History of Russia*, New York: Macmillan.
- Radušić, Edin(2011) “The Ottoman Wrong Horse?” in M. Hakan Yavuz, ed., *War and Diplomacy: The Russo-Turkish War of 1877-1878 and the Treaty of Berlin*, Salt Lake City: The University of Utah Press, pp. 165-197.
- Riasanovsky, Nicholas V.(2000) *A History of Russia*, 6<sup>th</sup>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ertçelik, Seyit(2015) *Rus ve Ermeni Kaynakları Işığında Ermeni Sorunu: Ortaya Çıkış Süreci 1678-1914*, Ankara: SRT.
- Şimşir, Bilâl N. ed.(1982) *British Documents on Ottoman Armenians: Vol. 1 (1856-1880)*, Ankara: Türk Tarih Kurumu Basımevi.
- \_\_\_\_\_ (1983) *British Documents on Ottoman Armenians: Vol. 2 (1880-1890)*, Ankara: Türk Tarih Kurumu Basımevi.
- Somakian, Manoug(1995) *Empires in Conflict: Armenia and the Great Powers, 1895-1920*, London: I.B. Tauris.
- Sonyel, Salahi(2000) *The Great War and the Tragedy of Anatolia: Turks and Armenians in the Maelstrom of Major Powers*, Ankara: Turkish Historical Society Printing House.
- Suny, Ronald Grigor(1997) “Eastern Armenians under Tsarist Rule” in Richard G. Hovannisian, ed., *The Armenian People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Vol. II,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109-137.

- Tauriverdi, Mustafa(2011) “The Treaty of Berlin and the Tragedy of the Settlers from the Three Cities,” in M. Hakan Yavuz, ed., *War and Diplomacy: The Russo-Turkish War of 1877–1878 and the Treaty of Berlin*, Salt Lake City: The University of Utah Press, pp. 449-478.
- Tokay, A. Gül(2007) “Ottoman Diplomacy at the Berlin Congress (June-July 1878),” in Ömer Turan, ed., *The Ottoman-Russian War of 1877–78*, Ankara: Middle East University, pp. 242-259.
- Turan, Ömer, ed.(2007) *The Ottoman-Russian War of 1877–78*, Ankara: Middle East University.
- Uras, Esat(1976) *Tarihte Ermeniler ve Ermeni Meselesi*, Istanbul: Belge Yayinlari.
- Walker, Christopher J.(1980) *Armenia: The Survival of a Nation*, London: Croom Helm.
- Wirthwein, Walter G.(1935) *Britain and the Balkan Crisis 1875–1878*,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Yavuz, M. Hakan, ed.(2011) *War and Diplomacy: The Russo-Turkish War of 1877–1878 and the Treaty of Berlin*, Salt Lake City: The University of Utah Press.

**Abstract****The Armenian Question and the European Great Powers:  
The Russo-Turkish War of 1877–78 and the Congress of  
Berlin****Kang, Yoon Hee\***

The Armenian Question refers to the plight of the Armenian population and its struggle for civil rights and administrative reforms in the Ottoman Empire. European Great Powers' involvement in the Armenian Question began with the Russo-Turkish War of 1877–78. According to the Treaty of Berlin signed at the Congress of Berlin in 1878, the Sultan government was obliged to carry out reforms in Armenia under the superintendence of the European Powers. However, despite the Powers' repeated demand for reforms, the Sultan government under Abdül Hamid II did not implement reforms for the Armenian people.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Armenian Question in the 1870s from the perspective of European diplomatic history. At the same time, it attempts to analyse the impact of the war and the subsequent treaty on the Ottoman Armenians.

**Key words:** Armenian Question, The Russo-Turkish War of 1877–78, Treaty of San Stefano, Congress of Berlin, Treaty of Berlin, The Concert of Europe, Russian Empire, Great Britain, Ottoman Empire

---

\*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Eurasian Studies, Kookmin University.

---

**강 윤 희**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 영국 글라스고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 『1972 한반도와 주변 4강 2014』 외에 다수 논문을 출간하였다. 최근 논문으로는 「푸틴 집권기 러시아 정부와 인권운동의 갈등 관계」, 「러시아 제국 주변부에서의 혁명: 아르메니아 민족주의와 단명한 아르메니아공화국」 등이 있다. 주 연구 관심 분야는 러시아와 유라시아 국가들의 시민운동, 외교 정책, 국제관계사 등이다.

---

**Kang, Yoon Hee**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Eurasian Studies, Kookmin University. She received Ph.D. at University of Glasgow in UK. She is the author of numerous journal articles and book chapters, including *Korean Peninsular and Four Great Powers, 1972 and 2014*, “Russian Human Rights Movement under Putin: Framing Processes and Political Opportunities,” “Revolutions in the Periphery of Russian Empire: Armenian Nationalism and the Short-Lived Armenian Republic.” Her research interests have focused on the issues of civil society,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relation history of Russia and Eurasian states.

---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8. 9. 30
논문심사일:	2018. 10. 15 ~ 2018. 10. 31
심사완료일:	2018. 11. 1